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레이스 스타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2월3일)을 앞두고 28일 오후 인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후보자와 각 정당에 전달할 선거 사무 안내 및 선거법 안내 책자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6월3일 실시된다. /뉴시스

‘앵그리 머니’ 증시 몰렸다 투자자에탁금 100조 돌파

은행 탈출 자금, 증권 계좌로

“예금 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시장은 거침없이 오르고 있네요. ‘내 집’ 없는 사람이 돈 벌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자신을 주부라고 밝힌 A씨가 최근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얘기다. A씨는 “주식 초보자지만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를 사는 게 금리가 2.8%대인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낫겠다 싶어 새로 증권 계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 증권사 프라이빗뱅크(PB)와 상담 일정도 잡아 났다”라고 말했다. A씨 외에도 모바일 등을 통해 증시 계좌를 여는 새내기 개미들이 늘고 있고, 증권사로 퇴직연금 실물 이전을 하고 있다.

올해 신용융자 2조 늘어 29조 은행 입출금·정기예금 급감소

증권사 영업센터 한 관계자는 “증시가 활황세를 띠자 고객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다”라고 전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속 집도 없는데 주식도 오르고,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 지친 ‘앵그리 머니’가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주식을 사기 위해 투자가가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투자자에탁금은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투자자에탁금은 100조282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92조원을 넘은 이후로 8일 만에 약8조원이 유입된 것이다.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 벌린 돈(신용융자)은 29조원(29조245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만 2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사실상 개인이 즉시 증시에 투입할 수 있는 실탄(투자예탁금+신용융자)만 130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약 961조원)의 13% 해당하는 규모다.

‘앵그리 머니’ 덕에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5170.81포인트, 1133.52까지 치솟았다.

열 받은 돈의 은행 탈출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이달 26일 기준 641조276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2조7321억원 급감했다. 지난해 10월 말 21조8674억원이 줄어든 이후 11월과 12월에 각각 1조8968억원, 24조2552억원씩 늘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큰 폭의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시장금리부 예금(MMDA) 등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대신 언제든지 입·출금할 수 있는 자금이다. 부동산 자금의 대표주자 격이다.

정기예금 잔액(932조3494억원)은 올해 들어 6조9368억원 줄었다.

앵그리 머니의 밀바탕에는 ‘벼락 지지(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상승장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포모(FOMO) 증후군’ 등으로 인한 조바심이 깔려 있다.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며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시중에 풀린 자금이 넘쳐나면서 유동성이 특정 업종과 종목에 몰리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며 “실물 경기와 괴리가 커지면서 급격히 조정반을 위험도 커졌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쿠팡 ‘배송규제’ 마트 ‘빛장 해제’ 15조 새벽배송 시장 격변 예고

국회, 규제방안 촉구 토론회

“야간노동, 유방암·전립선암 원인
금전보상 아닌 시간자체 제한을”

“마트 영업시간·배송 규제 풀어
이커머스-유통사 상생 해야”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야간배송 노동자의 주간 노동시간 상한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포함한 합의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썩어진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대형마트·SSM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쿠팡을 포함한 이커머스가 크도록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역차별 해소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15조원 규모로 성장한 새벽배송 시장에 이커머스 노동 규제 강화와 오프라인 유통 규제 완화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벽배송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의견이 모여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형렬 가톨릭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노동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군(2A) 발암물질로 유방암·전립선암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과 수면 장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단순히 돈을 더 주는 금전적 보상 차원이 아니라 노동시간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역시 “건설 현장 추락사고는 중대재해로 관리되지만 야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는 개인 질병으로 치부돼 예방 조치가 전무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무한 경쟁 구조를 ‘죽음의 레이스’로 규정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은 “쿠팡이 24시간 풀가동 시스템으로 시장을 장악하자 경쟁사들도 어쩔 수 없이 야간노동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개별 기업의 선의에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 상한선을 두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가린 연구원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낮은 단가와 알고리즘 압박 때문에 야간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예방 의무를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입법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택배 사회적대화기구는 지난 23일 주간 총 노동시간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는 원칙에 대해 택배회사·대리점·기사단체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뤄냈으며, 설 연휴 전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벽배송 마감시간(6시) 압박 금지 및 미준수 불이익 금지,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 및 연속근무 시 의무 휴무 보장, 하루 8시간 초과근무 제한 등 여러 원칙도 포함됐다.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새벽시간 영업 및 배송 금지 규제가 오히려 특정 기업의 독점을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대형마트와 SSM을 향한 야간 운영 및 배송 규제 해소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유통 매출은 전년 대비 11.8% 성장하며 전체 시장의 59.0%를 장악했지만 대형마트는 4.2% 역성장했다. 업계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의 발목을 잡은 사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틈새를 파고들어 15조 원 규모의 새벽배송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기세로 움직이고 있다. <2면에 계속>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SK하이닉스, 4분기 영업이익률 58% ‘대기록’

지난해 매출액 97조 ‘사상최대’
영업익 47조 기록, 2배수준 성장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은 물론 영업이익률이 60%에 가까운 경이로운 성적표를 냈다.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는 주요 구조에 맞춰 기술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 제품 비중을 확대해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는 28일 실적발표에서 2025년도 연결기준 매출액 97조 1467억원, 영업이익 47조 2063억원(영업이익률 49%), 순이익 42조 9479억원(순이익률 44%)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4년 대비 매출은 30조 원 이상 늘었고, 영업이익은 2배 수준으로 성장하며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새로 썼다.

4분기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4분기에는 HBM 뿐만 아니라 서버용 일반 메모리 수요도 크게 늘어났고, 이에 적극 대응한 결과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SK하이닉스

34% 증가한 32조 8267억원, 영업이익은 68% 증가한 19조 1696억원, 영업이익률 58%를 기록하며 세 지표 모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체로 6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률을 올림에 따라 호황기 반도체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확실히 입증했다.

구체적으로 D램 부문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매출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성장해 역대 최대 실적 창출에 기여했다. 일반 D램도 10나노급 6세대(1c나노) DDR5의 본격 양산에 돌입하고, 10나노급 5세대(1b나노) 32Gb 기반 업계 최대 용량 256GB DDR5 RDIMM

개발을 통해 서버용 모듈 분야 리더십을 입증했다.

낸드 부문 역시 상반기 수요 부진 속에서도 321단 QLC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기업용 SSD 중심 수요에 대응하며 연간 기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는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 중심으로 전환하며 분산형 아키텍처 수요가 확대돼 메모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HBM과 같은 고성능 메모리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낸드 등 전반적인 메모리의 수요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HBM3E와 HBM4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계 유일 기업으로서 확보된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 우위는 물론 검증된 품질과 양산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업계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한 HBM4는 고객이 요청한 물량을 현재 양산 중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메트로 한줄뉴스



▲구윤철 “美에 관세 합의 이행 의지 적극 설명…국회와 긴밀히 소통” /사진 뉴시스
▲박수영 “한동훈, 두 번의 기회 놓쳐…장동혁 단식 이어받았어야”

▲與 한준호 “지선 앞둔 합당, 적절치 않아…鄭 행위 자체가 의심 불러와”
▲北 미사일에 한미일 전화협의…“안보리 결의 위반”

▲당정,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제시…상반기 입법 추진
▲민주노총 “야간노동, 휴식 보장 등 ‘회복’ 전제로 한 규제 있어야…산안법 적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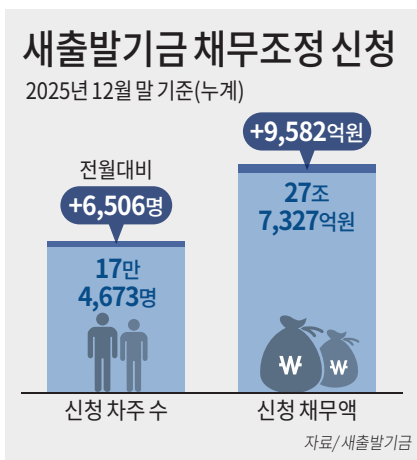
소비회복에도 체감경기 제자리 지난해 ‘새출발기금’ 11조 몰려

엔데믹 이후에도 골목상권 불황
폐업자·연체율 역대최고 수준
직전년도 대비 채무조정 1.7조 ↑

골목상권 불황이 여전하다. 실제로 정부의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액이 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채무조정 신청액의 40%에 해당하는 11조원이 새출발기금에 접수됐다. 국내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지만 골목상권 불황이 여전히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8일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새출발기금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액은 11조22억원이다. 직전년도의 9조3188억원보다 1조6834억원(18%) 늘었고, 누적 채무조정 신청액인 27조7327억원의 39.7%에 해당한다.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경영환경 악화로 연체가 발생한 소상공인의 재기와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90일 이하 연체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인하를, 90일 이상 연체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을 제공한다. 출범 당시에는 코로나19 피해요건 신청 자격에 포함했으나, 코로나 유행 종료에도 불황이 이어지자 코로나 피해요건은 빠졌다.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정부는 3년의 운영 기간을 설정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에 따라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기간도 늘려가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2023년에 1번, 2024년에 2번, 2025년에는 2번에 걸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 시장의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진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0년 4월 당시 71.2(100보다 높을수록 낙관적)까지 하락했던 소비심리는 작년 7월에는 110.7까지 올랐고, 11월에는 112.3까지 올라 2018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심리는 회복됐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2024년 한 해 동안 100만명을 넘긴 폐업자 규모는 여전히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집계한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를 앞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한 신용취약 소상공인 대출은 지난 19일 1월분 접수 개시 5분 만에 월간 예산을 전부 소진했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는 장기연체자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해 말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 채무조정’의 누적 채무조정액은 5조2354억원이다. 전체 채무조정의 53.4%에 해당하며, 2024년 말의 52.3%에서 1.1%p 늘었다. 1인당 채무원금은 87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70%에서 72%로 늘었는데, 정부가 작년 9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감면율을 확대한 영향이다.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47.7%에서 46.6%로 줄었지만, 1인당 채무원금은 755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었다. 평균 이자 감면율은 4.7%에서 5.2%로 0.5%포인트(p) 급등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감면율은 채무조정 대상 채권 금리에 따라 책정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중앙지법, 김건희 여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8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태군 여론조사·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 금품(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등) 수수와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며,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5000원 추징도 명령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군 무상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손진영 기자 son@

K-제약사, 글로벌 시장 수천억대 매출

항암분야 등 제품 경쟁력 입증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천억 원대 매출을 내며 바야흐로 ‘국산 블록버스터’ 시대에 성큼 다가섰다. GC녹십자, 유한양행,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 신약을 앞세워 해외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며 국내 제약 산업의 체질 변화를 이끌고 있다.

2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주요 사업에서 고마진 제품 경쟁력을 입증했다.

GC녹십자의 연결기준 2025년 연간 매출은 1조9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15% 커진 691억원이다. 사업 부문별로는 혈장분획제제 매출 5602억원(+17%), 자회사 5309억원(+31%), 전문의약품 4798억원(+14%), 백신 3006억원(+17%) 등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세가 나타났다.

전체 매출에서 혈장분획제제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특히 알리글로가 미국에서 전년 대비 211% 급증한 1511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호실적을 견인했다.

GC녹십자 측은 “해외 매출 확대가 주효했다”며 “꾸준한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백

라자’도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며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유한양행의 백라자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2024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첫 품목허가를 획득한 후 지난해에는 유럽, 영국, 일본 등 글로벌 핵심 의약품 시장에서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백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지난해 글로벌 매출 7억3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규모다.

아울러 지난해 말 미국 FDA에서 리브리반트의 피하주사(SC) 제형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병용 약물이 투약 편의성을 갖추게 되면서 백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실처방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는 미국에 이어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을 공략하는 등 매출 다각화에 나섰다.

엑스코프리(세노바메이트 미국 제품명) 미국 매출은 2020년 2분기 출시부터 2025년 3분기까지 22개 분기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SK바이오팜의 전체 누적 매출에서 세노바메이트 매출이 96%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한국, 12월 중국 등에 연달아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일본에서 도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신약허가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정부, R&D 체계 개편… ‘지역·AI·성과’ 집중

대형 전략과제 패러다임 전환
‘5극3특 성장엔진’ 4년간 2조

정부가 2030년 글로벌 3대 산업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 연구개발(R&D)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소규모·수도권 중심 R&D에서 벗어나 지역, 제조 인공지능(AI), 수요 앵커기업 중심의 대형 전략과제로 산업 R&D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산업 R&D를 ▲지역을 위한 R&D ▲제조 AI 전환(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등 3대 방향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우선 지역 주도의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4년간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 추진하고, 반도체 남부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 등 권역별 첨단산업화를 지원한다.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1조5000억원), 수소환원제철 실증, 특수탄소강 개발 등 지역 산업 위기 대응 R&D도 강화한다.

R&D 지원체계는 지역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평가 기준에 반영한 지역전용 R&D 과제를 신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설하고, 비수도권 참여를 확대한다. 지역기관만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기관부담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지역 기업 연구소가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50% 감경한다. 제조 AI 전환도 본격화한다.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해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고, 12대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AI팩토리를 현재 100여 개에서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제조 AI 선도모델 15개를 개발하고, 휴머노이드 등 임바디드 AI R&D와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추진한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 앵커기업이 주도하는 R&D 지원체계도 도입한다. 앵커기업이 협력기업을 직접 선정해 R&D부터 실증·양산까지 제안하면 정부가 R&D, 규제특례,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대형 과

제를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R&D를 위한 규제 완화 ▲혁신역량 강화 ▲가짜일 버리기 등 3대 기반 강화책도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해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 협의에 착수해 특례를 적시에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를 조성해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 단계부터 투자사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다. 박사후 연구원부터 스타엔지니어까지 성장 전주기 관점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국비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 비중을 2030년까지 30% 확대한다.

아울러 시장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는 중단이나 목표변경을 용이하게 하고, 연구비 자체 정산과 소액 정산 증빙 면제 확대 등을 통해 행정부담을 줄여 연구자가 ‘진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과 AI, 수요 앵커기업을 축으로 산업 R&D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규제와 사업화 간 간극을 줄여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R&D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치권, 경제적 합리성 기반 규제개혁 촉구

》1면 ‘쿠팡 배송규제…’서 계속

정치권에서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론에 힘을 싣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쿠팡에 대한 영업 금지 등 직접적 제재는 자칫 한미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미국과의 문제 소지 없이 쿠팡을 견제하는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풀어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대형마트는 이미 쿠팡 이상의 물류망을 갖추고 있어 규제만 풀린다면 네이버 등과 연계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며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 점포들이 영업시간 제한 탓에 밤새 죽은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기존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MFC)로 전환해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월 2회 의무휴업과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배송을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23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법은 만료를 10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간 연장됐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韓 “관세와 무관” vs 美 “비관세 장벽”… 디지털 규제 충돌

美측,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촉구
정부 “온플법과 관세압박은 무관”
美측 문서에 ‘망 사용료’ 직접 거론
온플법·망 이용대가 법안심사 속도
업계 “국내외 동일, 통상 문제 아냐”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문제 삼으며 관세 카드까지 거론하는 가운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과 관세 압박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망 사용료가 직접 언급된 미국 측 서한을 두고 업계에서는 “사실상의 규제 중단 요구”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양국 통상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해 “쿠팡이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빅테크 규제가 관세 인상을 촉발했다는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디지털 규제와 관세 인상을 연관시키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주한미국대사대리의 서한은 한국 정부가 디지털 규제를 호혜적으로 고민해달라는 의견이었을 뿐, 관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세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측이 보낸 서한의 내용은 국내 IT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보낸 서한에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며, 한국 내 디지털 이슈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강한 압박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동안 팩트시트에 담긴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사실상의 규제 면제

근거로 해석하며 한국 정부의 입법 추진을 견제하고 있다. 실제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를 근거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다. 미국의 서한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망 사용료 문제가 ‘네트워크 사용료’라는 명칭으로 직접 거론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국회에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이용 대가를 의무화하는 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며 논의가 재점화된 사안인데, 미국은 이를 명백한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속한 미국 측은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통상 문제를 제기해왔다.

온플법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처리 속도가 붙고 있다.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금지 조항이 적용

되면 구글·애플의 검색 상단 노출이나 유튜브 뮤직 결합 판매 등 이른바 ‘록인(Lock-in)’ 전략이 제약을 받는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까지 더해질 경우 수수료 기반 수익 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플랫폼 지배력을 흔드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미국 빅테크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 분석이다.

여기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온플법과 구글·애플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까지 얹혀 있어,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전달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국내 업계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 등 해외 기업이 당연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미지불하면서 국내 기업만 비용 부담을 안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는 통상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관세 25% 인상 예고 뒤, ‘쿠팡 제재’ 거론… 美 의회·밴스도 나서

WSJ “밴스, ‘쿠팡 제재 자제’ 경고”
美의회 “美 기업 표적이면 관세”
정부 “쿠팡·온플법과 관세 무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규제 움직임이 한미 간 외교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배경에 쿠팡 제재가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의회에서 제기되면서다. J.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강력한 경

고를 보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달 27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 23일 백악관에서 김 총리를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미국은 쿠팡 등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완화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심지어 미국 부통령실 내에는 쿠팡 문제를 전담하는 인력까지 별도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쿠팡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개별 기업이 수가 아닌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선언으로 현실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7일 한국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는 이날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유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조치가 사실상 한국 정부의 쿠팡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집권 여당이 공식 확인해 준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철회할 여지를 남긴 만큼 쿠팡을 둘러싼 미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 정부와 조현 외교부 장관도 관세 인상은 쿠팡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조현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미 국무부

와 접촉해 확인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쿠팡이나 온라인플랫폼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김 총리 역시 밴스 부통령과의 면담 직후 특파원들과 만나 “한미 관계는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11월 알려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따른 한국 당국의 고강도 제재 검토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둔 미국 기업 쿠팡을 겨냥한 비관세 장벽이자 차별 행위라고 보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설날장보기, 파주페이로 더 든든하게!

파주페이

2월 충전한도 100만원

파주페이 100만원 충전하면 10만원을 더!

기간 2.1.(일)~2.28.(토) **내용** 충전한도 100만원(인센티브 10만원)

문의 코나아이 ☎ 1899-7997 / 민생경제과 ☎ 031)940-4522

파주페이 신청하세요! 연중 10% 인센티브, 평상 시 최대 70만 원까지!
[온라인] 경기지역화폐 앱(파주시 설정)→카드 신청→우편 수령 후 등록→본인계좌 연결→금액충전·소득공제 신청→결제→이용내역 확인
[오프라인] NH농협, 단위 농·축협 방문→신청서 작성(신분증 및 파주페이 실물카드 지참)→현금 지급→카드 수령→소득공제 신청(고객센터)→결제

PAJU
더 크게,
더 즐겁게,
더 따뜻하게!

안드로이드

iOS

“코스피 6000·7000 위해선 경쟁력 있는 기업 확대 필요”

코스피 5000시대

⑤ 코스피 5000 이후는?

“반짝 오천피(코스피 5000) 아냐? 떨어지면 아플 듯”, “조정 올까? 육·칠천피 가기 전에 그냥 사?”, “돈은 넣어 뒀는데 어떤 종목 사야돼?”

코스피가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5000선 고지를 넘어서자 쏟아지는 질문들이다. ‘오천피’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외국인 자금, 개인 대기 자금, 기업 실적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며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다만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팔랐던 만큼,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오천피 다음’을 궁금해한다. 메트로경제는 ‘오천피 시대’에 국내 주요 증권사리서치센터장·본부장 11명의 의견과 학계 전문가의 분석과 전망을 종합했다.

◆오천피=외국인이 만든 방향+개인 가세

이번 코스피 5000 돌파의 출발점에 대해 리서치센터장들의 시각은 비교적 명확했다. 외국인 수급이 방향을 만들고, 개인 자금이 이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평가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상승은 환율이나 정책 이벤트에 반응한 단기 매수라기보다, 이익 가시성이 확인된 이후 들어온 외국인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외국인이 방향성을 먼저 만들었고,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와 ETF를 통해 추세에 올라탔다”고 설명했다.

外人, 이익 가시성 확인 후 투자 이어 개인 유입에 지수상승 탄력

투자자예탁금 100조… 역대 최고 신용거래용자잔고도 29조 돌파
조정 시 유입 여력 vs 변동성 커져

이진우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수 상승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주당순이익(EPS) 상향”이라며 “외국인은 가격을 밀어 올린 주체라기보다, 실적이 확인된 뒤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온 투자자”라고 분석했다.

다만 외국인 수급을 둘러싼 기대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WGBI 편입이 이뤄질 경우 자금 유입 기대에 따른 심리적 환율 안정 효과는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유입 자금의 대부분이 패시브 성격이고 환헤지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오천피 시대 개인 투자자의 역할은 ‘방향 설정’보다는 ‘속도 강화’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이 방향을 잡은 뒤 개인 자금이 유입되며 지수 상승 탄력이 커졌다”며 “상승장의 체감 강도는 개인 수급에서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사상 최대 대기자금과 빗투…과열 신호VS상승 저력

지수 상승과 함께 시장 내부 자금 지표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투자자예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증시전망

	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삼성증권 윤석모	한국투자증권 유종우	NH투자증권 조수홍	신한투자증권 윤창용
코스피 상단 전망	-	5400	5650	5500	5800
추천업종·섹터	반도체, 조선, 증권	반도체, 전력, 로봇	반도체, IT	반도체, 전력, 조선	반도체, 조선
시장해석 키워드	실적 기반 선별 장세	실적 기반 랠리	실적 확인 후 외국인 유입	개인 수급 확대	정책 효과는 중장기
     					
KB증권 김동원	메리츠증권 이진우	하나증권 황승택	대신증권 양지환	키움증권 이종형	토스증권 이영곤
5700	5350	5600	5300	5200	-
반도체	반도체, 전력, 로봇	반도체, 조선, 바이오	반도체, 방산, 지수	반도체, 방산, 은행	반도체·자동차·소부장
구조적 이익 체력	실적 확인 이후 상승장	조정 동반상승 국면	레버리지 수급 점검 필요	변동성 경계	K자형 장세 고착 ·선별적 상승

금과 신용거래용자는 모두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현재 시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최고조에 달해 있음을 보여준다.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100조2826억원으로 집계되며 100조원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말 80조원대 후반에서 출발해 새해 들어 꾸준히 늘어난 결과다. ‘빗투’ 역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27조원이던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이달 들어 빠르게 증가하며 29조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자금 흐름을 두고 시장의 해석은 엇갈린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기자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조정 시 유입될 여력이 남아 있다는 의미”라며 “과열로 단정하기보다는 상승 에너지가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자금 유입이 지수 상승을 뒤따르는 형태”라며 “과거 고점 국면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용용자 잔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신호”라며 “조정이 나타날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역시 “대기자금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금이 레버리지 형태로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지”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코스피 5000 이후의 조정 가능성이 곧 상승 추세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이 비교적 모인다.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확산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과 생산성 개선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과거 유동성 중심 랠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승 속도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조정 자체를 추세 훼손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단기 고점 논란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진우 센터장은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는 국면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계의 시각은 보다 보수적이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주가 실물경제와 기업 이익 증가 속도를 앞서 나간 측면

이 있다”며 “앞으로는 기대가 아니라 실적이 이를 따라올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지수가 빠르게 오른 만큼, 가장 현실적인 조정 트리거는 물가 재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거나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라며 “현재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완화적 금융환경이 흔들릴 경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의 중장기 추가 상승 여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지수는 크게 올랐지만 실적과 경쟁력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도 여전히 많다”며 “이런 기업 비중이 높은 한 지수 전체가 과거처럼 일괄적으로 레벨업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코스피 5000 이후 조정 가능성
상승 추세 종료 의미는 아나
실물경제·기업이익 속도보다
주가 상승 앞서 나간 경향 있어
美 통화정책 기조변화 등 변수

올해도 반도체 주도 성장 여전
제도보다 기업 실적이 주가 견인

◆반도체 주도는 분명…6000·7000의 관건은 실적 확산

이번 상승장의 주도주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교적 분명하다. 올해도 여전히 반도체가 중심이라는 데 센터장들 사이에 큰 이견은 없었다. 윤석모 센터장은 “HB 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 업황 회복이 실적과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본부장도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 전환 국면에서 이익 체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이후를 두고는 업종 확산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이후 국면에서는 지수 전반보다는 이익 가시성이 확보된 업종을 중심으로 순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상승장의 폭보다 질을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종우 센터장은 “반도체가 상승 랠리를 지속하는 가운데 조선, 방산, 원전, 로봇 등을 중심으로 순환해 지속되고 M

ASGA, 전쟁, 전력, 피지컬 AI 등이 상승 재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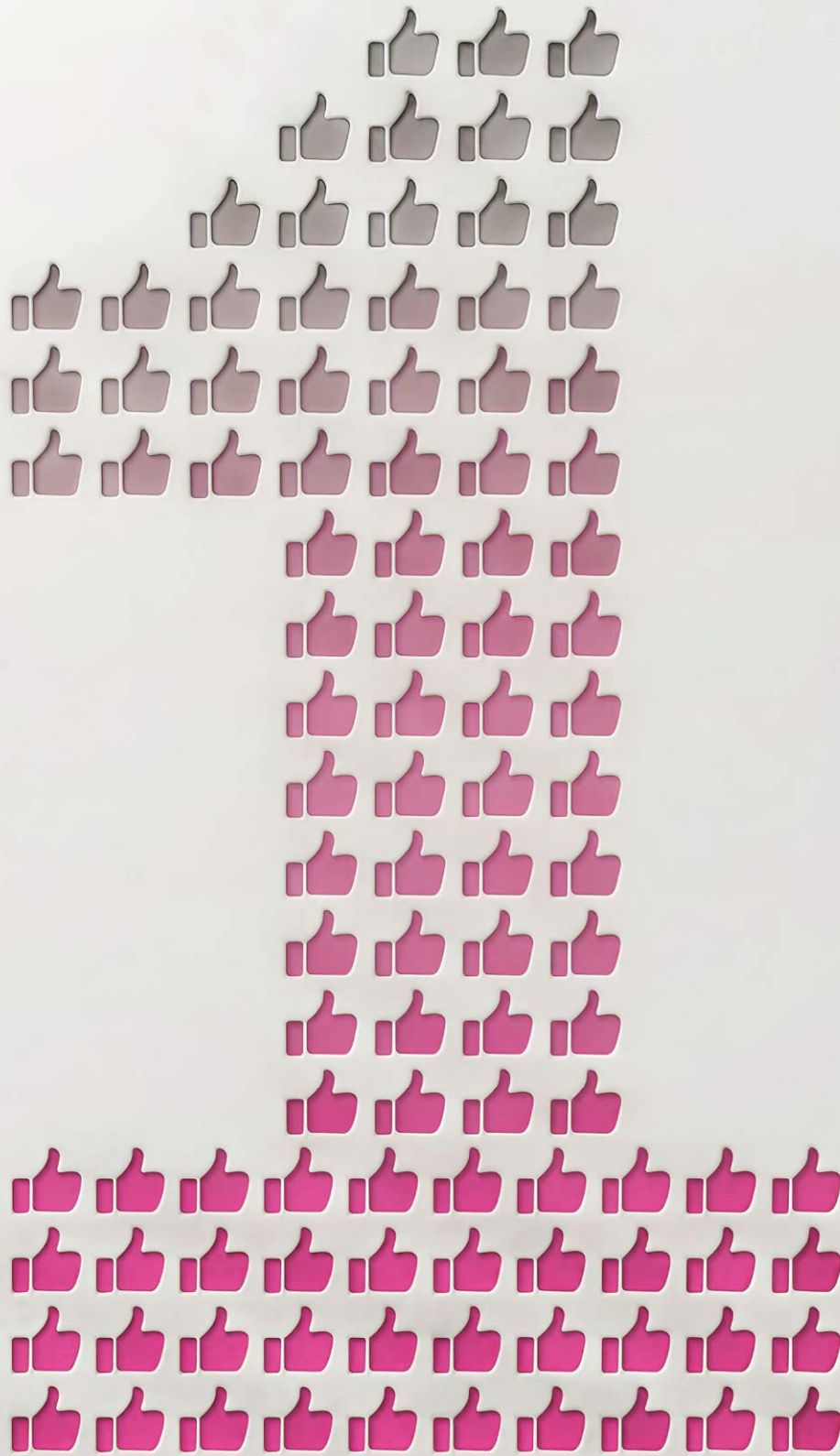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 역시 이번 상승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변수다. 다만 정책 효과를 지수 상승의 직접적인 동력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윤창용 센터장은 “국장 복귀 계좌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등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직접적인 재료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희찬 센터장도 “제도 변화는 시장 체질을 바꾸는 요인이지만, 곧바로 수급을 폭발시키는 이벤트는 아니다”라며 “결국 정책 효과 역시 실제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과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영익 교수는 “코스피 6000·7000이라는 숫자를 논하기에 앞서, 현재 지수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 구조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지수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 비중이 줄고, 경쟁력 있는 기업의 비중이 확대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용 교수도 “고점 이후 지수를 지탱하는 힘은 유동성이 아니라 실적과 금리 환경”이라며 “완화적 금융환경이 흔들릴 경우 고지대 지수는 과거보다 더 큰 변동성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의 시장은 지수 상승보다 실적으로 검증되는 기업을 얼마나 선별해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고객님의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믿음에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KNPS) 1위

★★★★★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
(KCSI) 1위

★★★★★
국가고객만족도
(NCSI) 공동 1위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만족도 1위

與 “대미투자특별법 조속 심사” 野 “국회 비준 동의해야”

외통위서 트럼프 관세 인상 공방

민주 “국힘, 한국 발목 잡는 것”
국힘 “정부·여당의 반대는 실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품목 관세 25% 재인상 발언 이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여당은 미 행정부와 소통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야당은 대규모 세금이 투입되는 투자인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與 “국회 비준 동의는 韓 발목 잡는 것”

이재정 외통위 여당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한 현안 질의에서 “전례를 보기 힘든 미국 대통령의 변주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교부, 정부의 스킴(기술)뿐 아니라 여야가 깊은 고민을 통해서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아쉽게도 대미 외교에 나름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보수 정부에서 역할하셨던 의원님들을 보면 쿠팡의 국민 기만 외교 로비의 국회 판을 보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한미통상협상이) MOU (양해각서)라는 형식을 선택했고, 문구에서 드러나 이해하고 있는 바를 국회가 뒷받침해줄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본다면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된 날로부터 소급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으니 법안을 심사해 처리하는 것이 최선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의 방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명시적 반대는 아니나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경제 상황의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국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라며 “유연하게 국내의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면서 미 트럼프 행정부의 특수성 대응을 위해서 특별법을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부연했다.

이 간사가 미국과 통상합의를 이룬 국가 중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곳이 있냐고 묻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호관세를 원상복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원상복구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지 않나”라고 하자 조 장관은 “관세 25%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 국내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와서 그것은 또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당 발의안만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발의안까지 총 5건이 발의됐다. 제정법인 것을 고려 숙려 기간을 감안하면 적절한 심의 절차에 들어갈 타이밍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野 “국회 비준 동의 왜 안 하나”

외통위 소속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

언을 보면 한미통상합의 후속 조치로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여당이 이를 반대했다며 이는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를 상대로 한 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어프루브(승인·Approve) 안했느냐란 단어를 썼다. 왜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 취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이어 “100% 양보해서 특별법 발의만 하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했으면 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하나”라며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국회 비준 동의의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릴 바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원만하게 처리하겠다고 오늘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다.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미국과 유연하게 잘 대처해나가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주한미국대사대리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을 소개하며 “서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해 미

국 기업이 차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며 대통령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기에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법이 관세 인상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관세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겠구나라는 보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지난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비준 동의를 제출하고 소상히 설명하면 된다. (정부가)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 된 협상이라고 하지 않았다. 비준 동의하고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제출조차 하지 않나”라며 “우리당이 소수당이라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막을 생각도 없다. 적절하고 국민이 동의하면 찬성하고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온갖 법, 특검법, 야당 탄압법을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다”며 “우리가 (비준 동의안) 왜 막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빨리빨리 처리하자”고 제언했다.

조 장관은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다. 지난번 상임위에서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 비준 동의가 필요없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을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韓 주식시장 저평가... 성장 가능성 높다”

이 대통령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 “지역·청년·스타트업에 투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만나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대한민국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역의 성장’에 참석해 “한국은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가 매우 뛰어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청년 고용과 지역 투자 확대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마련된 외국인투자 지원 정책방향을 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이 발표했다.

구체적 지원책으로는 ▲3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지방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외국인 투자기업 맞춤형 청년인재 육성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대폭 늘어났다고 한다. 역대 최대”라며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성장발전의 핵심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매우 환영하고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가 5000을 기록한 데 대해 “전례없는 변동”이라며 “국민도 놀라고 있지만, 예상보다 빨라서 놀랍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코리

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한반도 평화리스크, 기업 지배구조 리스크, 정치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지역과 스타트업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균형잡힌, 제대로 균형발전하는 나라를 만들려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중소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 더 보호받고, 창업과 스타트업이 좀 더 지원받아야 생태계가 튼튼해진다”며 “청년에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해 보여 한다. 그러면 창업에 투자를 아마 많이 하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전력 기적이 비싸다고 하는데, 생산 단가에 비하면 비싼 게 아니다”라며 재생에너지를 대량 공급해 단가를 낮추는 등 정책을 할 것이라며 “여러분도 기대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

與 “본회의 민생법안 100여건 처리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민생 법안 100여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이 해한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회견과 만나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야당과 협상중이지만, 29일 본회의에도 현재 60여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 중이고, 이것을 100개까지 늘리도록 여야간 머리를 맞대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2월 중에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이런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란 로드맵 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야당과 성의있고 진심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국회 입법 처리 현황에 대해 구두로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가 법안 처리 비율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 대통령의 말씀이 계셨지만, 한 원내대표 취임 이후 그런 부분을 속도감 있게,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스테이블 코인 자본금 50억 이상”

디지털자산TF, 핵심 쟁점 추후 논의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28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최소 법적 자본금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이견이 큰 쟁점은 논의될

더 이어가기로 했다.

디지털자산TF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디지털자산기본법 법률안 강독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강독회에선 ▲법안명 ▲디지털자산업종 설계·인가·등록 ▲스테이블코인 관련 한국은행과 협의 ▲디지털자산위원회의

위상 등을 논의했다.

TF는 추진하는 법안명을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확정 짓고, 스테이블코인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디지털자산 관련 업종을 8개 정도로 설계하고 위험도가 높은 2~3개 업종은 당국의 인가를 받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하도록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디지털자산 정책을 총괄적으로 협의할 가상자산협의회는 금융위원장이 위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기획재정부 차관, 과기부 차관도 참여하기로 했다. 안도걸 TF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 운용 시스템과 관련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가 해킹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대응도 필요해서 협의회에 과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F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논의는 결정하지 않았다. /박태홍 기자

LOTTERIA™

치킨버거의 근본을 세우다!

파이어핫

단 품 6,900원

세트 8,900원

두툼하다
두툼해!

짐작맨'S PICK

그릭랜치

단 품 6,900원

세트 8,900원

깎 래 야 깎 수 없는 무적의 치킨 버거

통다리 크리스파 치킨버거

상기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 자본시장·불법사금융 한정… 금융위서 관리”

이역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2개 항목 외 특사경 적절치 않아”
3월 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계부채 韓 경제 ‘핵심 리스크’
DSR 중심 여신관리체계 강화

이역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련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 특사경의 권한 범위를 넓히고 금융위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특정분야에서 ‘행정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수사, 압수수색) 등을 부여해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특사경 권한을 전면 부여하기보다, 금감원이 신속대응해야 하는 자본시장과 불법사금융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란 취지다.

이역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특사경 권한 확대… 금융위 통제 강화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인지 수사권을 요구하는 ‘금감원 특사경 활



이역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용도 제고방안’을 전달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전통적 자본시장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범죄가 단일행위로 끝나지 않는 만큼 수사권을 회계부정·허위공시, 자본시장 연계 사기·배임 등으로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도 도입해달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수사권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사경 논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

사권 부여와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 부분을 넘어서는 영역은 금감원에 특사경을 두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권력, 권한 남용 우려 등을 통제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서 받는 것보다 그에 상응해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편이 실효적이라고 했다.

그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서 통제를 받는 방법과 그와 상응해 어떤 주체가 통제하는 방법도 있다”며 “금융위라는 특수성도 있고, 금감원이라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통제의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이나 플러스 알파정도로 하되 방법은 주무부처가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배구조, CEO 연임 주주 통제 강화 검토

이날 이 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을 축으로 개선택을 논의하겠다”며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금감원의 실태점검 결과까지 종합해 법제화·제도화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CEO 연임을 둘러싼 ‘참호 구축’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주주 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은행지주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외이사 단일제와 같은 쟁점도 “아이디어로 올라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TF가 특정 금융지주나 개별 사안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 케이스에 맞춰 제도

를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 개선 자체가 앞으로의 기준이자 시장에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 가계부채, DSR 확대·총량 관리 고삐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핵심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한 상환능력 기반 여신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신규 취급 대출 가운데 DSR이 적용되는 비중이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점은 시장 상황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총량관리 기조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2025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 수준에 머문 점을 감안해, 이를 하회하는 관리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총량 관리는 경상성장률(명목 GDP 성장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저축銀, 부실채권 정리·투자 확대… 자산구조 재편

업계, 이역원 금융위원장 간담회에서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완화 요구
1050억 규모 부실채권 매각 예고

저축은행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유가증권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자산 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다. 쌓여가는 부실 채권은 정리하는 동시에 투자 채널을 다각화함으로써, 약화된 수익성을 회복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달 있을 이역원 금융위원장과 의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수익 다각화를 위한 본격적인 판로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은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만 유가증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단,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실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동안 유가증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총잔액은 지난 2024년 12월 말 8조9269억원에서 지난해 3월 말 9조618억원, 6월 말 10조4462억원, 9월 말 12조472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수익 실현을 위해서다.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중 단기매매증권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9416억원에서 9월 말 기준 1조6622억원으로 증가했다. 분기 사이에 약 77%나 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매도가능증권은 8조2805

억원에서 9조4378억원으로 약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는 증권으로, 보통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뜻한다.

저축은행은 수익성 다변화와 동시에 부실자산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국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에스비 엔피엘(SBNPL) 대부’를 통한 부실채권 매각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SBNPL 대부는 지난해 5월 설립된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 전문관리 자회사로 올해 초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SBNPL 대부를 통해 총 1050억원의 부실채권이 매입·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립 자본금 5억원에 유

상증자 100억원이 더해지면서 SB NPL 총자본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번 증자로 최대 1050억원까지 부실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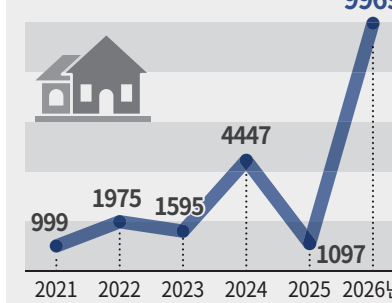
이처럼 저축은행이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 것은 여수신 중심의 본업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저축은행 예수금은 지난 2024년 9월 말을 기준(102조5683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99조 5158억원)까지 지속 감소해 왔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영향으로 지난해 9월 예수금이 105조원164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12월 99조원까지 추락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1분기 서울 분양물량 추이

단위: 가구 수



1분기 서울 아파트 1만 가구 쏟아진다

총 12곳… 청약 경쟁률 높을 듯

올해 1분기 서울에서만 1만 가구 안팎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온다. 강도 높은 규제에도 서울 주요 지역의 분양 단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예정된 분양은 12곳, 9969가구(공공·민간분양 합계, 총 가구 수 기준)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21년에는 999가구에 불과했으며 ▲2022년 1975가구 ▲2023년 1595가구 ▲2024년 4447가구 ▲2025년 1097가구 등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지난해 내내 이어진 규제와 가격 변동 속에서도 서울은 ‘분양 불패’ 흐름을 이어왔다”며 “올해 1분기 분양 단지들 역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인뱅-지방은행 협업, 개인사업자 대출 선점

토스-광주, 케이뱅크-경남 맞손
중저신용자 대상 공동대출 나서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중저신용자 확보를 둘러싼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플랫폼들이 관련 약관 정비를 마친 가운데, 인터넷은행은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등을 앞세워 갈아타기 수요 선점에 나설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주요 플랫폼은 약관변경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대출 갈아타기는 더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상환방식, 만기 연장 등)의 대출로 변경해 이자부담을 줄이거나 재정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확보가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본격적으로

갈아타기 고객 유인에 돌입할 태세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2024년부터 개인 신용대출 공동대출인 ‘함께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경우인터넷전문은행은중저신용자 취급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을 낮추

면서도 갈아타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규 개인사업자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역시 지방은행과의 협업대출을 통해 기업·개인사업자 금융을 확장했다. 케이뱅크는 경남은행과 손잡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상 공동대출을 출시하며 중저신용자 포용 범위를 넓혔고, 카카오뱅크도 전북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중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급했다.

/나유리 기자

中, 프리미엄 TV시장 정조준… 韓기업 기술격차 시험대

中업체, 日브랜드 잇달아 인수
프리미엄 TV 시장 보폭 관측
삼성·LG, OLED 기반 맞대응

중국 가전 업체들이 일본의 전통 TV 브랜드를 잇달아 품으며 프리미엄 TV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순 인수만으로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내세워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소니는 중국 TCL과 TV를 포함한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분사해 합작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두고 TCL이 소니와의 협업을 통해 프리미엄 TV 시장으로 보폭을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 따랐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2017년 중국 하이센스가 일본 도시바 TV 사업을 인수



130형 마이크로 RGB TV.

/삼성전자



LG전자 올레드 TV 라이프 이미지.

/LG전자

하고 난 뒤에도 시장 판도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이번 사례 역시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하이센스의 지난해 11월 출하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이센스는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국이 전체 출하량의 27%를 차지했다. 이 시장에서 출하량은 전년 대비

24%의 큰 감소세를 겪었다.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 업체들의 비중 확대가 나타나고 있으나,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지난해 3·4분기 기준 글로벌 TV시장 점유율은 중국 3사(TCL·하이센스·샤오미)가 합산 31.8%로 집계됐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17.9%, 10.6%를 차지하며 양사를 합친 수치보다 중국

업체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액정표시장치(LCD) TV를 중심으로 한 중저가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영향력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매출 기준 글로벌 OLED 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67.2%로 같은 기간 중국(33.3%)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퀀텀닷 디스플레이(QLED)·OLED 기술력을 앞세운 프리미엄 제품과 초고화질(UHD) 및 소형 LED T

V 등 보급형 제품을 함께 운영하는 '트랙 포트폴리오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LG전자는 최근 두께 9mm대 초슬림 디자인과 무선 전송 기술을 결합한 OLED TV를 공개하는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TCL이 소니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OLED 기술을 단기간에 내재화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TCL이 중저가 시장 기반을 바탕으로 소니 브랜드를 활용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시도는 업계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가전 기업들의 일본 기업 인수는 프리미엄 전략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이며, 국내 가전기업들은 TV 시장에서 중국의 물량 공세와 저가 공세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차별화 전략을 꾀하기 어렵다"며 "고급화·프리미엄 전략을 통해 중국 제품과의 차별점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제철, 美 전기로 제철소 착공 가시화

합작법인 지분구조 4자 체제 확립
설비계약 순항… 3분기 착공 목표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프로젝트의 합작법인 지분 구조가 4자 체제로 공식화된다. 현대제철·현대차·기아·포스코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이 대규모 자본 출자를 공시하면서 설비 계약과 부지 확보에 이어 자금 집행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현대포스코 루이지애나(HYUNDAI-POSCO Louisiana LLC)는 지난 26일 미화 29억 달러(약 4조2689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해당 법인은 미국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LLC) 형태로 주식이 존재하지 않아 신주 발행 관련 항목은 공시에서 생략됐다. 조달 자금은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시설자금으로 투입되며, 출자금은 건설 기간에 맞춰 분할 납입된다. 최종 납입 시점은 오는 2027년 말, 투자 집행 기간

은 2026년~2029년 1분기로 각각 기재됐다. 회사 측은 미국 현지 기준 지난 26일부터 합작 지분 전환 효력이 개시돼 출자금 납입 절차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100% 자회사인 현대제철 미국법인(Hyundai Steel USA Corp.)이 현대포스코루이지애나에 미화 14억 5000만달러를 현금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이를 위해 현대제철 미국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유상증자)도 함께 결정했다.

최종 지분 구조는 현대제철 미국법인 50%, 현대차 미국법인 15%, 기아 미국법인 15%, 포스코루이지애나 20%로, 기존 현대제철 100% 단독 구조에서 4자 합작으로 전환된다. 포스코와 현대차 측은 세부 조달 방식은 추후 확정·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적 기반 구축도 이미 진행 중이다. 현대제철은 최근 이탈리아 설비업체 다니엘리와 루이지애나 전기로(EAF) 일관제철소 핵심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

다. 다니엘리는 에너지론(Energiron) 기반 직접환원철(DRI) 플랜트와 EAF 2기, 주조기 2기, 슬래브 재가열로 2기 등을 공급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부지 확보도 진행됐다. 현지 매체는 지난 7일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미시시피 강 인근 어센션 패리시 일대 1700에이커 부지를 약 9100만달러에 매입해 제철소 건설 산업단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정부는 도로 개선·인력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총 6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는 올해 3분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오는 2029년 양산에 돌입한다는 일정이다. 완공 시 연 270만톤 규모의 자동차 강판용 슬래브를 생산해 미국 내 완성차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루이지애나 합작법인은 참여사들이 미국 내 법인을 출자 창구로 삼아 자본금을 납입하는 구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제네시스, 오프로드 콘셉트카 공개

제네시스가 27일(현지 시간) 아랍에미리트 룩알리 사막에서 '제네시스 데저트 프리미어 행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한 익스트림 오프로드 콘셉트카 '엑스 스포피오 콘셉트' 외장 디자인. /현대차

2025년 실적 발표

현대모비스, 역대 최대 매출·영업익 달성

매출 61.1조, 영업익 3조3575억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동시에 달성했다.

현대모비스는 2025년 연결 기준 매출 61조1181억원, 영업이익 3조3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 9.2%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모듈 조립, 부품 제조 등을 포함하는 제조 부문이 5.9% 증가한 47조8001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북미 전동화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가운데 전장 부품 등 고부가가치 부품의 성장이 매출 증가를 이끌었고, 미국 관세 영향에도 전사적인 손익 개선 활동으로 수익성 개선을 달성했다.

A/S 부품 사업 부문은 글로벌 수요 강세와 우호적인 환율효과로 매출 13조 318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0.2% 증가한 수준이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스마트코티지' 체험 공간 마련

김제에 '죽산모락' 오픈

LG전자가 차별화된 AI가전 및 냉난방공조 기술을 집약한 모듈러주택 'LG 스마트코티지(이하스마트코티지)'를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LG전자는 최근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서 지역 청년 창업가 모임 '오후협동조합'과 손잡고 복합 문화공간 '죽산모락'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코티지가 팝업 쇼룸이 아닌 상시 체험 가능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죽산모락에는 단층형 모델 모노(MONO)와 복층형 모델 듀오(DUO) 각 2채씩 설치됐다. 모노는 한 층에 거실, 침실, 부엌, 욕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듀오는 1층엔 거실, 부엌, 욕실 등 생활공간이 있고 2층은 침실로 꾸며졌다.

두 모델 모두 냉장고, 빌트인 인덕션,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워시타워, 스탠바이미 등 LG전자의 AI가전을 탑재해 방문객이 편리하게 휴식하도록 했다.

LG전자 스마트코티지 컴퍼니 조연우 대표는 "LG 스마트코티지는 내 집처럼 편안히 쉴 수 있는 모듈러주택을 원하는



LG전자가 레저 및 관광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B2B 고객을 위해 전북 김제시 죽산면에 LG 스마트코티지를 상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죽산모락'을 열었다.

/LG전자

고객은 물론, 레저·관광 사업을 준비하는 B2B 사업자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LGD, 흑자전환 성공… 영업익 5170억

LG디스플레이가 4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LG디스플레이는 연간 누적 매출액 25조 8101억원, 영업이익 5170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적개선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사업 구조 고도화와 원가 구조 혁신, 운영 효율화의 성과로 풀이된다.

전체 매출 내 OLED 제품 비중은 61%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0년 32%에 불과했던 OLED 매출 비중은 2022년 40%, 2024년 55%로 지속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5년은 대형 LCD 사업을 종료하여 LCD에서 OLED로 사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차현정 기자

중고차·K-뷰티 쌍끌이… 中 수출 1186억달러 ‘역대 최대’

중기부, ‘2025년 수출 동향’

전년 1110억 달러比 6.9% 증가
중고차, CSI·중동서 수요 급증
18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 기록
화장품, 美서 오프라인 공략
유럽·중동 두 자릿수 이상 올라

중고차와 ‘K-뷰티’를 대표하는 화장품이 이끄는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118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2년부터 수출이 내림세를 기록했던 중국이 3년 만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수출 중소기업 숫자는 9만8219개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10만개를 넘지 못했다. 중소기업이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200곳이 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잠정치)은 전년의 1110억 달러보다 6.9% 늘어난 1186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역대 중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소기업 수출은 2021년(1155억 달러), 2022년(1145억 달러) 순으로 많았다.

중소기업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중고차, 화장품이 주도했다.

중고차는 작년에만 90억 달러를 수출하며 전년보다 무려 76.3% 증가했다.

특히 독립국가연합(CIS) 국가인 카자흐스탄(106.0% ↑), 카자흐스탄(107.2% ↑)이 한국 중고차 수요가 폭발

적으로 늘었고 아랍에미리트(91.2% ↑) 등 중동(58.6% ↑)으로도 많이 나갔다. 중고차수출은 2024년 7월 이후 18개월 연속 늘어 매달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83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1년 동안 21.5% 증가한 화장품은 중고차에 이어 중소기업 수출 2위 품목에 올랐다.

화장품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메이저 유통사에 한국 화장품이 새로 입점하는 등 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대도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과 중동 지역 수출 역시 두 자릿수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국가는 2022년 194곳에서 192곳(2023년)→197곳(2024년)을 거쳐 지난해에는 204곳을 기록했다.

특히 화장품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67%에서 지난해에는 72.5%까지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은 이외에도 ▲플라스틱 제품(48억 달러) ▲자동차부품(43억 달러) ▲반도체제조장비(32억 달러) ▲반도체(32억 달러) ▲합성수지(30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 수출 국가는 중국이 3년간의 부진을 털고 최대 수출국으로 재부상했다. 현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K-패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확산으로 화장품, 의류 같은 소비재 수출 증가와 동제품, 플라스틱제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국가는 중국 외에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키르기스스탄, 인도, 러시아, 멕시코가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일본, 홍콩, 대만으로의 수출이 지난해 늘었다.

미국은 관세 리스크 등 불확실한 수출 여건에도 화장품, 전력용기기(변압기 등)가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2위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출지원정책 확대와 기업의 노력이 맞물려 전반적으로 개선된 흐름을 보이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관세 등 통상리스크 장기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소기업 수출의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 10곳 중 7곳, 外人 1년내 이직요구 경험

중기중앙회, ‘E-9 사업장 변경’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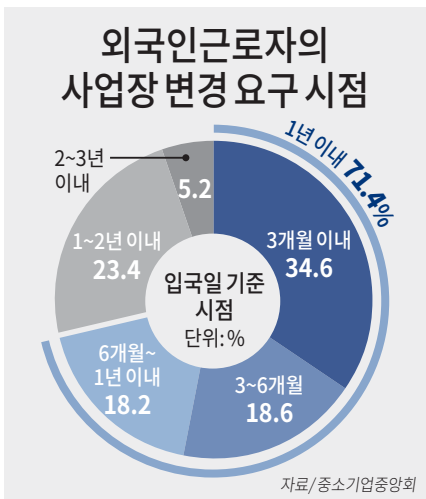
71.4%, 입국 1년 내 이직 요청
34.6%, ‘3개월 이내’ 최다 응답
48.7%, ‘초기 3년 제한’ 현행 유지

“사장님, 나 다른 곳으로 갈래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1년내에 이직 요구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곳 중 1곳은 현행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 31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 관련 의견조사’에서 나왔다.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력의 이직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업장변경 제도를 두고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8.7%가 초기 3년간 변경 제한이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는 ‘2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31.6%),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후 자유로운 이동 허용’(19.7%)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74.5%는 현행 제도 하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요구 시점은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가

71.4%였는데 이 중에서도 ‘3개월 이내’가 가장 많았다. 특히 3개월 이내 변경 요구를 받은 비수도권 기업의 비중(37.8%)이 수도권 기업보다 8.3%포인트 높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소기업(복수응답)들은 ‘영세 기업의 인력난 심화’(61.3%)를 가장 우려했다. ‘납기 준수 어려움 등 생산성 하락’(54.2%), ‘도입·취업교육 비용 및 직무교육(OJT) 기간 등 유·무형적 손실 확대’(43.5%)에 대한 우려도 컸다.

사업장 변경 제한이 현행보다 완화될 때 제일 시급한 보완 정책(〃)으로는 ‘이직자 발생 시, 해당 기업에 E-9 우선 선발’(60.6%)이 1순위로 꼽혔다. 아울러 ‘사업주 귀책사유가 아닌 노동자 책임이 명확한 이직에 대한 페널티 부여’(59.5%), ‘기숙사 설립·운영비용 세액감면 등 중소기업 지원 확대’(45.3%) 등도 언급됐다.

/김승호 기자

에코프로, 창사 첫 유럽 판매법인 설립

통상규제 강화에 현지대응 체계 구축

에코프로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럽 현지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헝가리 생산 거점 구축에 이어 판매 전진기지까지 확보하면서 강화되는 유럽 통상 규제에 선제 대응하고 현지 고객 접점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최근 조직 개편을 단행해 독일에 유럽 판매 법인을 설립하고 김벌비르디(Kimbal Virdi) 이사를 법인장으로 임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출범한 유럽 법인은 급변하는 유럽 전기차·배터리 공급망 환경 속에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유럽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유럽 시장은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발효를 계기로 역내 조달 규제가 강화되면서 완성차(OEM) 업체들이 핵심 소재를 직접 확보하

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에코프로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유럽 법인을 중심으로 고객사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에코프로는 지난해 11월 헝가리 데브레첸에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며 유럽 내 생산 기반을 확보했다. 이번 판매법인 설립을 계기로 생산과 판매, 마케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지 배터리 셀 메이커와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제품 포트폴리오도 유럽 시장 특성에 맞춰 다변화한다. 소형 전기차 비중이 높은 유럽 시장을 고려해 하이니켈 양극재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를 중심으로 대응 폭을 넓힌다.

이와 함께 유럽 내 잠재 고객 발굴과 더불어 현지 리사이클 업체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원관희 기자 wkh@

에스원 ‘AI 빌딩 에너지 솔루션’ 주목

AI가 에너지 사용패턴 분석

냉난방·조명·환기 최적 제어

올 겨울 연일 한파가 이어지며 노후 건물의 관리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원의 ‘AI 빌딩 에너지 솔루션’이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에스원에 따르면 ‘AI 빌딩 에너지 솔루션’은 AI가 에너지 사용 패턴을 학습해 최적 운영 방안 제시하고 ESG경영까지 돕는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과 IoT 센서를 활용해 동파·침수 사고를 막는 ‘스마트 건물관리 시스템’으로 구성

된다.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은 건물 곳곳에 설치된 센서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AI가 자체 알고리즘으로 이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잡아낸다.

AI는 냉난방·조명·환기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24시간 감시하다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알려준다. 또 언제 어떤 설비를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필요하면 시스템이 직접 설비를 제어해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

실제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빌딩은 도입 첫 해 에너지 사용량을 5.4% 줄였고, 청담동의 빌딩은 7.3%를 절감했다. 에너지 비용이 연간 10억원인 건물 기준 각각 5400만원, 7300만원을 절약한 셈이다.

ESG 경영도 지원한다. AI가 실시간으로 수집된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에너지원별 배출 계수를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으로 산정한다. 기업은 별도 집계 작업 없이 자동 산정된 데이터를 ESG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다.

IoT 센서 기반 스마트 건물관리 시스템은 기계실과 배관실 등 핵심 설비에 온도·수위 센서를 설치해 24시간 감시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에이스침대, 싱글 침대 ‘올리보’ 선보여

브리티시 레트로 스타일

‘투 매트리스’ 시스템 적용

에이스침대가 브리티시 레트로 스타일의 싱글 침대 ‘올리보(OLIVO)’(사진)를 출시했다.

29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올리보는 브리티시 레트로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브릭 침대로 편안함과 세련미의 조화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헤드보드의 톤 다운된 올리브 그린 컬러와 정갈한 체크 패턴은 침실 공간에 평온하면서도 생기 있는 무드를 선사한다. 자연의 색감을 담은 컬러로 내추럴·모던 컨셉의 인테리어와도 조화롭게 어울리는 것이

특징이다.

110mm 두께의 볼륨감을 자랑하는 헤드보드는 모서리를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해 시각적·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전면에는 탄탄한 쿠션을 적용해 기대었을 때 높은 편안함과 지지력을 제공하며, 상면과 측면에도 동일한 쿠션재를 사용해 생활 속 안전성까지 고려했다.

수면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트윈 침대 구성에도 적합하다. 개인의 수면 습관과 선호도에 맞춰 매트리스 경도를 선택하여 최적의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고급스러운 침실 분위기까지 연출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UGC 시장, 5년 뒤 3배 성장… 네카오, 판 키우기 경쟁

〈이용자 제작 콘텐츠〉

네이버 ‘씽스북’ 오픈베타 서비스
웹툰 ‘컷츠’ 크리에이터 모집

카카오, ‘카톡 숏폼 챌린지’ 통해
공식 크리에이터 풀 확보 나서

국내 양대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용자 제작 콘텐츠(UGC) 시장 선점을 위해 보폭을 넓히고 있다. 숏폼 콘텐츠 확산과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로 UGC가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는 핵심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장기 수익 모델로써의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UGC 확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UGC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해 공유하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리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숏폼과 AI 기술 결합을 통해 생산성과 확산 속도가 크게 높



/각사

아졌다.

UGC 시장의 성장성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 업체 모르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UGC 플랫폼 시장 규모는 지난해 약 98억달러에서 올해 126억달러로 29%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5년 뒤인 2031년에는 439억달러까지 확대돼, 현재 대비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루언서 커머스 확산, 짧은 형식의 영상 소비 증가,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보급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네이버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신규 UGC 플랫폼 ‘씽스북’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씽스북은 텍스트 기반 플랫폼으로, 이용자

가 영화·책·음악·여행·일상 경험 등을 컬렉션 형태로 기록하고 관심사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네이버는 북미에서 운영 중인 웹툰, 왓패드, 밴드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씽스북 사용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도 숏폼 UGC 확대에 나섰다. 네이버웹툰은 숏애니 서비스 ‘컷츠’의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선발 인원에게 창작 지원금과 조회 수 기반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실제로 일부 콘텐츠는 1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냈고, 회사 측은 하반기 추가 선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플랫폼 내 이용자 참여형 콘텐츠를 늘려 체류 시간과 콘텐츠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숏폼 기반 UGC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카톡 숏폼 챌린지’를 통해 공식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

집하고, 선발된 이용자에게 단계별 미션과 콘텐츠 제작·채널 운영 교육,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 콘텐츠 업로드를 넘어, 장기적으로 활동 가능한 크리에이터 풀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업계에서는 UGC 경쟁의 핵심으로 AI 기술 활용을 꼽는다. 자동 편집, 자막 생성, 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로 이용자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UGC는 트래픽 확보 수단을 넘어 수익 창출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유사 콘텐츠 양산, 저작권 이슈,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기준 정립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UGC는 이제 플랫폼 부가 기능이 아니라 핵심 사업 영역”이라며 “숏폼과 AI를 결합한 수익 구조를 누가 먼저 안정화하느냐에 따라 향후 플랫폼 경쟁 구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 ‘ESG 데이터’ 투명성·신뢰도 강화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약 280개 데이터 통합 관리

SK텔레콤은 ESG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등 국제 ESG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 따른 국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다.

ESG 데이터 통합 플랫폼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급망 정보, 윤리경영 현황 등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약 280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내 시스템과 연계해 ESG 관련 데이터의 약 절반을 자동으로 수집함으로써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AI 기반 기능을 적용해 ESG 지



엄종환 SK텔레콤 ESG추진실장(왼쪽 네번째)과 SKT 자회사 ESG 임원들이 ‘ESG데이터 통합 플랫폼’ 론칭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SKT

표 관련 문의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시보드를 통해 주요 지표를 시각화해 ESG 관련 경영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넷제로’ 추진 현황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넷제로 로드맵과 이행 실적, 감축 비용, 연간 목표 등을 한 번에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고도화했다.

SK텔레콤은 향후 SK브로드밴드, S

K텔링크 등 자회사의 ESG 데이터도 해당 플랫폼을 통해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룹 내 ESG 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분산된 ESG 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구상이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기후 관련 정보 공개 보고서 등 각종 ESG 공시 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관리·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LG U+, 악성 앱 추적으로 고객 3만명 보호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 활용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지속적으로 추적한 결과,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에 노출된 고객 3만명 이상을 사전에 보호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데이터 통합 분석·대응 체계인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에 사용되는 악성 앱 제어 서버를 추적하고 있다. 해당 방식으로 범죄 조직의 서버를 상시 추적한 통신사는 현재 LG유플러스가 유일하다.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범죄 조직은 제어 서버를 통해 피해자의 수신 전화를 차단하거나, 발신 번호를 수사기관 번호로 위장하는 등 범행을 이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악성 앱 제어 서버와 실제로

통신한 이력이 있는 고객을 신속히 찾아내는 것이 피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힌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약 800개의 악성 앱 제어 서버를 분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악성 앱 설치로 서버와 교신한 흔적이 있는 고객 3만3000여명을 확인해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방식으로 추가 피해를 예방했다.

LG유플러스는 경찰 출동 이전 단계에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성 앱 설치가 확인된 고객에게 즉시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는 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부터 6개월간 해당 알림을 받은 고객은 약 1만8000명으로, 이들은 인근 경찰서나 LG유플러스 매장에 상주하는 보안 전문 상담사를 통해 대응 지원을 받았다. /김서현 기자

지니 TV 오리지널, ENA 최고 시청률

국내외 OTT서 1위 차지하기도

KT는 2025년 공개한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들이 ENA 채널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고 국내외 OTT 시청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주요 지표에서 성과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방영된 ‘착한 여자 부세미’는 ENA 채널 기준 최고 시청률 7.1%를 기록했다. 11월 공개된 ‘UDT: 우리 동네 특공대’는 쿠팡플레이에서 공개 첫 주 대비 주간 시청률이 약 420% 증가했고, 자체 최고 시청률 5%를 기록했다.

OTT 플랫폼에서도 시청 성과가 이어졌다. ‘신병 시즌3’는 티빙 공개 기간 동안 시청 순위 1위를 유지했으며, 시즌 1·2도 같은 기간 상위권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UDT’는 쿠팡플레이 ‘이번 주 인기작’ 부문에서 4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당신의 맛’은 넷플릭스 공개 직후 국

내를 포함한 23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현재 ENA 채널에서 방영 중인 ‘아이돌아이’ 역시 공개 첫날 넷플릭스 국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시즌제로 이어진 ‘신병 시즌3’는 지니 TV 주문형 비디오(VOD) 조회수 500만 회를 기록하며 IPTV 이용률 확대에도 기여했다. ‘신병’ 시리즈는 2026년 시즌 4 제작이 예정돼 있다.

콘텐츠 화제성 지표에서도 성과가 확인됐다. ‘신병 시즌3’는 굿데이터코퍼레이션 집계 기준 TV 드라마 부문 화제성 1위, TV·OTT 통합 부문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KT는 지난해 4월부터 IPTV 독점 공개 방식에서 벗어나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등으로 유통 채널을 확대했다. ENA 채널과 OTT 동시 편성을 통해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방송과 OTT를 연계한 전략을 추진해 왔다. /김서현 기자

데브시스터즈, 신작 ‘오브스메시’로 반등 시험대

조길현 대표 체제 방향성 증명
라이브 운영·글로벌 서비스에 달려

데브시스터즈가 신작 ‘오브스메시’를 앞세워 실적 반전을 노리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실적 부진과 신작 공백 속에서, 이번 작품이 조길현 대표이사(사진) 체제의 방향성을 증명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8일 데브시스터즈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작 ‘오브스메시’ 개발과 서비스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오브스메시는 기존 쿠키런 IP 세계관을 확장한 대전형 캐주얼 게임으로, 빠른 플레이와 경쟁 요소를 핵심으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시리즈를 통해 글로벌 흥행을 경험했지만, 이후 신작 성과 부진과 라이브 서비스 부담이 겹



조길현 대표

치며 성장세가 둔화했다. 이에 따라 조직 효율화와 개발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해졌고, 현재 체제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핵심 기조로 작동하고 있다. 조길현 체제의 데브시스터즈는 과거 대형 프로젝트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비교적 개발 부담이 낮고 글로벌 확장이 용이한 장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브스메시는 이러한 전략 변화의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특히 짧은 플레이 타임과 직관적인 조작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점에서, 기존 코어 유저뿐 아니라 신규 이용자 유입을 동시에 노린다.

업계에서는 오브스메시의 성과를 가를 요소로 라이브 운영 능력과 글로벌 서

비스 전략을 꼽는다.

대전형 캐주얼 게임은 초기 흥행보다 장기 체류와 경쟁 구조 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와 밸런스 조정 속도가 성과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변수는 쿠키런 IP 의존도다. IP 인지도는 분명 강점이지만, 동시에 기존 이용자 기대치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오브스메시가 쿠키런의 연장선이 아닌 독립적인 재미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데브시스터즈에게 오브스메시는 단순한 신작이 아니라 전략 전환의 결과물”이라며 “이 작품의 성과가 향후 개발 방향과 투자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오천피시대 열렸는데 코스닥은 제자리… 문제는 ‘좀비기업’

(부실기업)

W 천스닥

③ ‘다산다사’로 시장 활성화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신뢰 떨어뜨려
상장사 20%, 이자 못 갚는 한계기업
부실기업 퇴출하고 혁신기업 키워야

“코스닥은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거나 주가 조작이 많다거나 웬만하면 퇴출이 안 돼 종목이 너무 많다는 불신이 있다. 대한민국 기업이 실력보다 저평가된 이유는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미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코스닥 시장의 현실을 꼬집은 말이다.

코스닥이 천스닥을 넘어 3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오랜 고질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스닥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나스닥은 지금도 애플·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 같은 초우량 기업이 지수를 견인한다. 반면 코스닥은 시총 상위권에 있던 우량주들이 자금 조달의 안정성과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코스피로 옮겨가는 ‘엑소더스’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부실기업 퇴출이 늦어지고,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시장의 신뢰를 낮추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다.



ChatGPT로 생성한 ‘주가, 수익성 등이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 내 한계기업(좀비기업)’ 이미지.

◆시장 좀먹는 부실기업

국내 상장사 5곳 중 1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국(G5)과 한국의 상장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4년 3분기 기준 분석대상 상장사 2260곳 중 19.5%(440개)가 한계기업이었다. 2016년 163곳(7.2%)에서 8년만에 2.7배로 늘었으며, 미국(25.0%)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경우로, 사업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만으론 이자를 상환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한계기업 비중은 특히 코스닥 상장사

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중에선 한계기업이 2.5%p 증가(8.4%→10.9%)한 반면, 코스닥 상장 한계기업은 17.1%p 증가(6.6%→23.7%)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상황이 더 어렵다는 게 나타났다.

구조조정은 더디다. 한국은행의 ‘경제 위기 이후 우리 성장은 왜 구조적으로 낮아졌는가’라는 보고서를 보면 퇴출 고위험 기업은 2014~2019년 약 4%였지만 실제 퇴출된 기업은 2%에 그쳤다. 한은은 퇴출 고위험 기업이 제대로 정리되고 정상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웠다면 국내 투자는 2014~2019년 3.3%, 2022~2024년에는 2.8%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은 각 기간에 0.5%, 0.4%씩 늘었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지난해 명목 GDP가 2556조8574억원이었음을 고려했을 때 최소 10조2274억원에서 최대 12조7843억원이 증가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는 퇴출 고위험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보다 투자를 현저히 적게 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나 퇴출이 원활했다면 상당한 투자 증대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동전주도 널리 있다. 이날 기준 168개는(관리종목 2개 제외) 주가 1000원이 안되는 동전주다. 20개 종목은 시가총액이 40억원은 넘지만 150억원이 안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실적 좋은 기업들은 유가증권 시장으로 빠지고 코스닥은 결국 ‘잡주들의 놀이터’라는 자조 섞인 시선을 끊으려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전한 생태계 만들어야

동전주가 시장에서 버티고 부실기업이 쉽게 퇴출되지 않는 철밥통(장벽이 두터운 상태) 문화가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스닥 상장·퇴출 기준을 새롭게 해 ‘다산다사(多産多死)’ 생태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른바

좀비 기업은 방출하고, 신산업 혁신 기업은 시장에 빠르게 진입시킨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에만 국한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올해 안에 인공지능(AI)·에너지·우주산업 등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분야별 기술자문역(60명 내외)을 위촉하기로 했다.

또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렸다. 한국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이 경우 코스닥 상장사 중 14개 기업이 폐지 위험군에 속한다. 오는 2029년 기준이 300억원으로 상향되면 165개사(약 9.5%)로 증가한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저히 저하된 기업의 수익성을 유의적으로 개선하기 이전에는 단기간에 주가의 견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또한 직시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 노력을 병행하고, 저하된 수익성을 개선해 사용자본의 효율적 활용과 재배치를 통해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구민 자유기업원 연구원도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잔존은 중요소생산성을 저하시킨다”며 “한계기업이 자원을 소모하며 생존하는 상황은 구조조정의 실패로 이어지며 부실기업 퇴출 지연이 전체 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삼전·하이닉스, 반도체 목표주가 상향

서버 메모리 수요 증가 전망

삼성전자 10.6% 하이닉스 17% ↑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가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다. 메모리 가격 흐름과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단기 실적 추정치를 끌어올린 데다, 2026년에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서버 메모리 수요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목표가 상향의 배경으로 꼽힌다.

28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증권가가 제시한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주가는 16만9846원

으로 직전(15만3615원) 대비 10.6% 상향됐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평균 목표주가는 74만8000원에서 87만6231원으로 17% 상향됐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6만원, 15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과격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SK증권은 메모리 업황이 예상보다 강력하다며 이날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26만원으로 올리고,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150만원으로 높였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전

체 수요 증가에도 공급 능력은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국면”이라며 “기존 예상을 상회하는 강력한 메모리 업황을 반영해 올해 D램과 낸드 상승률을 각각 111%, 87%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KB증권도 AI 수요가 강력한 점을 반영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각각 24만원, 12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삼성증권도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20만원, SK하이닉스는 95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메모리 반도체는 빅테크 업체들의 AI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자산으로 급부상

하며 재평가될 전망”이라며 “특히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등 피지컬 AI 확산은 주변 환경을 고해상도 이미지와 실시간 영상으로 이해하고 물리적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월드 모델이 필수기 때문에 고용량 메모리 탑재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 폭이 가파른 점도 증권가에서 목표가 상향을 가속하는 이유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실적 눈높이도 연이어 상향 조정하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평균은 122조8787억원으로 1개월 전 대비 44% 상향됐으며,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도 99조4286억원으로 한 달 전 대비 31% 올랐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프랭클린템플턴 “주식·채권 투자 기회 점진적 확대” 전망

글로벌 자산운용사 프랭클린템플턴이 2026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전반의 투자 기회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가 중립 수준으로 이동하고 기업 실적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성장 흐름이 이어지면서 분산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28일 프랭클린템플턴은 인컴 투자와 자산 배분 측면에서 채권과 주식을 아우르는 분산 전략이 유효하다고 봤다. 에드 퍼크스 프랭클린 인컴 인베스터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국채, 주택저당증권(MBS), 투자등급·하이일드 회사채, 레버리지론 등에서 인컴 투자 기회를 보고 있다”며 “통화정책이 보다 중립적인 기조로 전환되며 채권 분산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식과 기술 섹터에 대해서는 시장의 초점이 유동성에서 펀더멘털과 혁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너선 커티스 프랭클린 에퀴티 그룹 공동 CIO는 “2026년 시장은 펀더멘털, 혁신, 액티브 운용이 주도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AI를 이미 수익화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은 펀더멘털 측면에서 설명 가능한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고, 이를 제외한 다수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전사 전략 ‘실행 중심’ 재정렬

‘리더스 컨퍼런스’ 전면 개편

NH투자증권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여의도 본사에서 전사적 경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사 사업부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NH투자증권이 매년 초 진행해 온 ‘리더스 컨퍼런스’를 전면 개편한 행사다. 기존의 일방적인 성과 보고와 전략 전달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전사 전략과 각 사업부의 실행 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의사결정 중심의 회의로 재설계됐다. 이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해 전사 전략 방향을

하나로 정렬(Alignment)하고, 실행 중심의 경영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포석이다.

회의에서는 사업부별 핵심 추진 과제와 우선순위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부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각 사업부 대표는 2026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공유했으며, 전략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조직 간 조정 과제까지 통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부서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우선순위 과제들을 명확히 확정하며 전략의 실효성을 높였다.



NH투자증권은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여의도 본사에서 전사적 경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전사 사업부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른쪽에서 세번째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참석한 모습. /NH투자증권

이번 회의에는 윤병운 대표이사를 비롯해 WM, IB, 디지털, 운용, 홀세일 등 전 사업부 대표와 리스크관리, 경영전략 등 주요 지원 부문 본부장들이 전 일정 상시 배석했다. 이들은 사업부 간

극을 조정하고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과 대안을 제시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Solution Provider)’ 역할을 수행했다.

/허정윤 기자

/허정윤 기자

장영진 사장 “생산적 금융 확대 등 무역보험 275조 목표”

무역보험공사 신년 간담회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대폭 강화
3000억 규모 특해보증 공급 계획
디지털혁신 기반 업무 효율화 속도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올해 무역보험 지원 목표를 275조원으로 설정하고, 대미 투자 지원과 수출시장 다변화, 중소·중견기업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 위기 돌파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를 경신,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보는 지난해 총 268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해 우리나라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에 기여했다. 이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는 109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장 사장은 “우리 경제의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근간인 중소·중견기업 지원 또한 매년 확대하여, 작년에 역대 최대인 109조원을 지원했다”며 “올해는 11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장 사장은 “무역보험기금을 출연하는 대기업과

은행이 추천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금융을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공급망 경쟁력을 되살릴 것”이라며, 대기업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인 ‘수출 공급망 강화보증’의 지원 산업을 자동차·철강·조선에서 플랫폼, 푸드, 뷰티, 방산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연계한 ‘수출패키지보증’도 출연재원 확충을 통해 저금리·고한도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도 대폭 늘린다. 장 사장은 “지난해 특례보증을 2024년 73억원 대비 약 30배 증가한 2143억원 지원했고, 올해는 3000억원을 공급해 수출금융의 사각지대를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증가하는 대미 투자 수요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에도 무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 사장은 “무보가 가진 30년의 프로젝트 금융지원 노하우와 인적·물적 인프라를 총동원하여 미국발 발주수요를 우리 기업들이 선점하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며, 아세안·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대한 무역보험 공급을 62조원에서 66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방산과 AI·신재생에너지 등 전략 미래산업 지원도 병행한다. 장 사장은 “방

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K-방산 정상 외교와 연계한 CEO 마케팅을 실시하고, 수입국의 현지화 요구에 부응한 현지 생산거점 건설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진짜성장’ 구현을 위한 AI 산업 전 주기 및 신재생에너지 금융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보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효율화에도 속도를 낸다. 장 사장은 “‘AI 선도기관’으로서 관련 조직을 본부로 격상하는 등 조직개편을 마쳤다”며 “다양한 정보를 플랫폼에 담아내고, 다 이렉트 상품을 AI를 접목해 고객 만족의 차원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공급망 재편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우리 수출이 순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농업·농촌분야 설 민생안정 대책

성수품 공급 1.7배 확대… 500억대 할인지원

배추 등 13개 품목 최대 40% 할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공급을 평년대비 1.7배로 확대하고 500억 원대의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사과·배·한우·계란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안정 대책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설 3주 전부터 평년대비 1.7배인 17만1000톤(t)으로 늘린다. 사과와 배,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농산물의 경우,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4배 공급을 늘리고 마늘은 정부 비축 물량 28%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한다. 축산물은 도축장 주말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확대를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통해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에는 산림조합 보유 물량을 활용해 평시 대비 10배 넘게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 성수기 할인 지원에 총 566억원을 투입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9일간 배추, 무,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3개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쌀은 20kg 기준 최대 4000원 정액할인 방

식으로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참여 시장을 200곳으로 확대하고, 농산물상품권은 지역별로 고르게 배정해 고령자 우선 구매 기간을 운영한다. 농협과 자조금단체, 유통업체도 자체 할인행사에 참여해 사과, 배, 한우 국거리, 계란 등에 대해 최대 65% 특별 할인을 추진한다. 과일·축산물·전통주·홍삼 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 공급하고 혼합과일세트 공급 물량도 10만 세트에서 20만 세트

로 늘린다.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활동도 강화한다. 농촌돌봄활동지원사업과 농협 행복채우미를 활용해 안부 확인과 반찬 나눔을 실시하고, 난방유는 리터(ℓ)당 30원 할인 공급한다. 아울러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다음 달 13일까지 원산지표시 단속과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위생 점검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집중 소독과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노동부, ‘가짜 3.3’ 위장고용 적발

김영훈 장관 “감독활동 강력히 실시”

근로자 수십 명을 사업소속자로 위장해 고용해 온 대형 음식점이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에 적발됐다. 정부가 ‘가짜 3.3’ 위장 고용을 겨냥한 전국 기획 감독에 착수한 이후 첫 공개 사례다.

노동부는 28일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최근 급성장한 곳으로, 30대 최고경영자(CEO)와 가족이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감독 청원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진행했다. 감독 결과, 이 사업장은 음식 조리과 홀 서빙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52명 중 38명(73%)에 대해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

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임금명세서 미교부, 연차휴가 미부여, 계약서류 미보존 등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 등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둔갑하거나, 근로자임에도 오분류 되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활동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고, 가짜 3.3 계약 근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인천·경기 연안 야간조업 규제 개선

2399㎥ 규모 어장 확대

인천·경기 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해 온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된다.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척의 어선이 연간 3100톤(t)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연간 136억 원의 추가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과 경기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정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전면 개편

가맹본부-점주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창업 희망자가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본’과 ‘개설·운영·종료’ 생애주기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

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이다. 기존 항목 나열식 구조에서 벗어나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를 재구성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요약본 형태로 먼저 제공한다. 이를 통해 브랜드 간 비교·선택이 쉬워질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안전보건공, ‘추락안전매트’ 대중화 시동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신규품목 도입

한국안전보건공단이 산업현장의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의 신규지원 품목으로 처음 도입한다.

안전보건공단은 28일 추락 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 부상을 경감할 수 있는 ‘추락안전매트’를 클린사업

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16일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규 품목 도입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추락안전매트를 현장에 도입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3월 중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천혜의 자연과 함께 달리는 환상적인 라이딩! **2026**
영월 메디오폰도
 2026 YEONGWOL MEDIOFONDO

2026. 3. 29 SUN 09:00

08:00 영월 동강체육공원 집결

접수기간

2026년 1월 6일(화)

10:00부터 선착순 마감시까지

참가부문

사이클 / MTB

참가인원

선착순 2,000명

코스거리

78Km(메디오폰도)

참가비용

80,000원

참가신청

yowo-mfond.com

관련문의

02-6743-33304

yowo-mfond.com

◎ 대회관련 상세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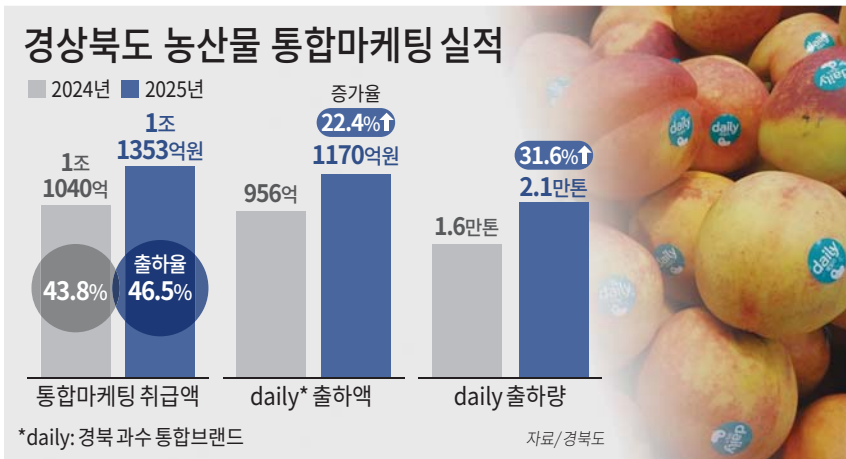
경북도, 20개 시군 ‘통합마케팅’… 농산물 판매 1.1조 성과

공동출하·판매로 유통 효율 개선
‘daily’ 매출 1170억… 사상 최대
올해 16개 사업 860억 예산 투입

경북도가 추진해 온 농산물 통합마케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산지 유통구조 대전환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20개 시군이 참여한 통합마케팅 조직을 통한 농산물 취급액은 1조 1353억을 기록했다. 이는 개별 농가 중심의 분산 출하 방식에서 벗어나 산지 물량을 통합·조직화해 시장 협상력을 높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daily는 전년 대비 22.4% 증가한 1170억의 매출을 올리며 브랜드 도입 이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출하량도 전년 대비 31.6% 늘어나며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했다.



이 같은 성과는 농산물을 개별적으로 판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판매 창구를 하나로 묶는 통합마케팅 전략이 효과를 거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 16개 통합마케팅 조직은 공동 출하와 판매를 통해 유통 효율을 높였고, 출하 조직의 납품 비율도 2024년 43.8%에서 2025년 46.5%로 상승했다.

또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활용해 품질을 표준화하고 대량 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통 경로를 단축하고, 농가가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daily 브랜드 역시 품위 기준을 시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신품종을 도입하는 등 전략적 운영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복숭아 매출이 전년 대비 75.8% 증가하며 성장

주도했고, 사과와 포도 등 주요 품목도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청송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등 주요 주산지가 daily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결집해 산지 간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 점도 매출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경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유통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낸다. 통합마케팅 관련 사업비 98억 원을 포함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과 공동선별 지원 등 유통 전반 16개 사업에 총 860억원을 투입해 농산물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통합마케팅과 daily 브랜드의 성과는 농업인과 유통 조직이 통합의 가치에 공감하고 힘을 모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포항시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포항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68대와 수소 버스 20대 등 모두 88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대폭 상향한 보조금 수준을 올해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차종별 지원 금액은 수소 승용차 디올 뉴 넥쏘 대당 3750만 원, 수소 고상버스 유니버스 대당 4억 1000만 원이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경주시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경주시는 예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의미 중심의 소규모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참여자를 오는 2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의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의 하나로, 형식과 비용 중심의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부부 중심의 간소하고 따뜻한 예식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결혼 예정인 부부가운데 결혼식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신혼부부로, 예식은 양가 객객 합산 100명 이내로 진행해야 하며, 관내 펜션과 카페, 종교시설 등 소규모 결혼식 취지에 부합하는 장소에서 열려야 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김해시

대피시설 길안내 웹페이지 구축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이 위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난 대피시설 길안내 웹페이지를 자체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명구조함, 자동심장충격기, 비상소화장치, 각종 대피소 등 총 8종 1000개소 이상의 시설물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 내비와 연동해 해당 시설물까지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능도 갖췄다.

시가 제공하는 링크나 QR 코드를 통해서 재난 위급 상황에 필요한 자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창녕군

17개 지구 하천정비 사업

창녕군이 기후 변화에 따른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총 2119억원 규모의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정비사업은 4개 분야 17개 지구에서 진행된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7개 지구(22km)에 1495억원, 도시하천 생태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2개 지구(1.2km)에 174억원, 소하천 및 비법정 정비 사업 6개 지구(11km)에 313억원, 국가하천 환경 정비 2개 지구에 13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경남도, ‘농정 대전환’ 본격 추진

밀양 일원에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딸기 등 주력 수출품종 경쟁력 강화

경상남도는 27일 스마트 농업 중심의 미래 농업 전환과 농업인 소득 안정 등 농업 분야 주요 시책을 밝혔다.

도는 2026년을 농정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청년 중심 스마트 농업 확산과 구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추진한다. 딸기·파프리카·토마토 등 신선 농산물 수출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단지를 고도화하고 선별·저온유통 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형 스마트 농업단지가 조성된다. 국비 89억원을 투입해 밀양시 일원에 10ha 규모로 만들어지며 청년농이 10~30년간 농지를 임차한 뒤 분할 상환으로 소유권을 받는 선임대·후분양 방식이다.

영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

터 유치도 추진한다. 도는 상반기 타당성 조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국비 확보에 나선다. 생산부터 배송까지 아우르는 거점 물류체계를 구축해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비 절감과 공급 안정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도 본격화한다. 총사업비 463억원을 투입해 진주시 문산읍에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조성하고,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농어업인 수당은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된다. 1인 농어가는 연 60만원, 2인 농어가는 총 70만원을 받게 되며 오는 3월 신청 후 6월 중 지급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돼 도내 4개 산단에서 13만 5000식을 지원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산시, 청년정책 1871억 예산 투입

일자리·주거 등 5개 분야 96개 사업

울산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2026년 청년 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김두겸 시장과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 계획 심의·의결과 함께 김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청년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시는 청년들의 고민과 제안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 정책은 ‘청년이 머물며 성장하는 AI·산업수도 울산’을 비전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96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비는 전년보다 155억원 늘어난 1871억원이 투입된다.

일자리 분야에는 83억원이 배정됐다. 청년 재직자 수퍼패스 이용권, 창업의 꿈 울산이 이뤄 드림, 울산 자영

업자 아이와 함께 행복업 등 신규 사업으로 일 경험부터 취업, 정착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주거 분야는 603억원 규모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범서굴화 청년 특화주택 건립, 온산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 울산 청년 웰스테이 지원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삼산동·달동 등 6개소에서 청년주택 150호가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교육 분야는 1011억원을 들여 20개 사업을 펼친다. 이전공공기관 취업 아카데미, AX 시대 청년 리더십 프로젝트, 유·미디어팩토리 등 신규 사업으로 울산 전략 산업과 연계한 인재를 키운다.

복지·문화 분야는 26개 사업에 164억원, 참여·권리 분야는 17개 사업에 10억원이 배정됐다. 슬기로운 청년 경제 교육, 울산형 공공예식장 지원 사업 등이 신규로 추진된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부산시, 와상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편도 기준 1회 이용요금 5000원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교통수단에 이동식 간이 침대 설비를 갖춘 와상 장애인 이동 지원 서비스를 내달 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표준형 휠체어 탑승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이용하지 못했던 보행상 중증 와상 장애인들이 병원 진료와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갈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보행상 중증 와상 장애인이다. 편도 기준 1회 이용 요금은 5000원이며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을 포함한 시·군 내 병원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전문 교육을 받은 복지 매니저와 보조 인력이 동승해 안전한 이동을 책임진다.



두리발 특수차량 내부 모습. /부산시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서비스는 두리발 사업이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지자체 1위를 달성한 성과를 이동 사각지대 교통약자 복지로 환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권기금 등 국·시비 재원을 적극 활용해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의 질적 확대와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해남군, ‘농촌유학’ 신규사업 확대

지역자원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해남군은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지역 정주형 교육정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3년 15명 수준이던 해남군 농촌유학생 수는 2025년 63명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현재 7개 학교에서 초·중·고생 46명, 중학생 17명이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 내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17개 시군

농촌유학 가구 및 학생에게는 월 40만원의 농촌유학 경비가 지원되며, 특히 해남군은 농촌유학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상거주가 가능한 4개소를 포함해 10개소의 가족체류시설을

운영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2026년 신규사업도 확대한다. 2월부터는 농촌유학 신축 주택 거주자에게도 유학 6개월 이상 유지 시 유학경비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산면에 가족체류시설 4동을 신축한다. 농촌유학 우수 학교 2개소를 육성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와 가족이 함께 성장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선택”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체류시설과 경비 지원을 포함한 농촌유학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쓸 수록 혜택 축적”… 이커머스, 멤버십으로 ‘탈광족’ 공략

〈쿠팡 탈출족〉

G마켓 1분기 내 ‘꼭 멤버십’ 예정
할인쿠폰 중심 벗어난 적립형 구조

SSG닷컴, ‘쓱세븐클럽’ 7% 적립
쿠팡플레이 스포츠 시청층 공략도

배달의민족, 쿡커머스 배달로 재편



G마켓이 적립형 구독서비스 ‘꼭 멤버십’을 올해 1분기 선보이며 탈광족 잡기에 나섰다.
/G마켓

이커머스 업계가 탈광족(쿠팡 탈출족)을 잡기 위해 멤버십 개편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절대 강자의 아성이 흔들리는 틈을 타 적립형 혜택 등 차별화된 무기로 멤버십 전쟁 2라운드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신세계 계열 이커머스다. 지난해 12월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종료 후 신세계 계열 이커머스는 단순함을 우선으로 한 적립식 멤버십을 띄우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의 복잡한 혜택 구조가 충성 고객을 붙잡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전략 수정으로 풀이된다.

G마켓은 2017년 업계 최초 유료 멤버

십 ‘스마일클럽’을 선보인 이후 9년 만에 독자적인 멤버십 ‘꼭 멤버십’을 이르면 올해 1분기 내 출시한다고 예고했다. 꼭 멤버십의 핵심은 직관적인 적립이다. 기존 할인쿠폰 중심의 혜택에서 벗어나 쓰면 쓸수록 혜택이 쌓이는 적립형 구조로 전면 개편한다. 쇼핑을 할수록 쿠폰이 사라지는 소모성 구조가 아니라 이용할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방식으로 고객 경험을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G마켓 관계자는 “새 멤버십은 단순한 리뉴얼을 넘어 쇼핑 빈도가 높고 구매력



SSG닷컴이 직관적이고 단순한 혜택으로 쓱세븐클럽을 홍보하고 있다. 공식 캐릭터인 ‘쓱칠이’.
/SSG닷컴

이 강한 충성 고객에게 압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라며 “새로운 배송 혜택과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등 막바지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SSG닷컴도 같은 전략이다. SSG닷컴은 앞서 월 2900원에 결제 금액의 7%를 적립해주는 ‘쓱세븐클럽’을 선보였다. 복잡한 계산 없이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다는 단순함이 탈광 고객들의 니즈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월에는 KBO, KBL 등을 중계하는 티빙을 선택형 옵션으로 추가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며 쿠팡플레이로 이탈한 스포츠 시청층을 잡기 위해 나섰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쿠팡의 지배력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와이즈앱·리테일 조사 결과 2025년 쿠팡의 결제추정금액은 6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정보 유출 이슈 이후 이용 강도가 느슨해지는 조짐이 나타났다. 아이지이에이웍스에 따르면 쿠팡 이슈 직후인 12월 3주차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의 주간 사용자 수는 전월 대비 15.2%, SSG닷컴은 14.4% 증가하며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배달의민족도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틈을 노려 점유율을 다시 뺏어오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배민 장보기·쇼핑은 지난해 12월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월 대비 월 주문 수는 15.4%, 신규 고객 수는 30%나 급증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새벽배송 중심이었던 배달 시장을 쿡커머스로 재편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달의민족은 배민B마트뿐만 아니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

형 유통업체와 동네 가게까지 약 2만 개의 매장을 입점시켜 전국 95%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아한형제들 이효진 커머스부문장은 “평균 30분이면 배달 받는 배민만의 경쟁력으로 장보기 쇼핑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자신했다.

컬리 역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쿠팡의 대안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컬리는 지난해 사상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한 데 이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문 건수는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고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449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예전에는 빠른 배송에 지갑을 열었다면 이제는 ‘내가 낸 구독료보다 얼마나 더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지며 비교하는 성향이 강해졌다”며 “플랫폼들이 배송 속도 경쟁을 넘어 눈에 보이는 현금성 적립과 실질적인 체감 혜택으로 충성 고객 생탈전에 나서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유통업체 매출 6.8% ↑… 민생회복 쿠폰 덕

산업부 ‘지난해 유통업체 매출동향’
내수진작 정책에 오프라인 매출 회복
대형마트 매출은 대부분 부진한 모습

이재명 정부의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 내수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며 백화점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출도 반등했지만, 대형마트의 부진은 이어졌다.

산업통상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15개사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11개사의 매출 및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유통업체 매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오프라인 매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 진작 정책이 본격화되며 하

반기 들어 회복세로 돌아섰다.

업체별로 보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편의점도 0.1% 성장하며 플러스로 전환했다. 두 업체 모두 상반기에는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7월 이후 6개월 연속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준대규모점포 역시 연간 기준 0.3% 소폭 증가했다.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4.2% 감소했다. 설과 추석이 있는 1월과 10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다. 준대규모점포도 상반기에는 플러스였지만 하반기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식품 매출 부진으로 점포당 매출은 2024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했다.

온라인 유통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온라인 매출은 전년 대비 11.8% 늘며 전체 유통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식품(17.5%), 서비스·기타(29.1%), 가전·전자(7.2%) 등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온라인 매출 비중은 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부가 최근 5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유통업체 매출은 2021~2025년 연평균 6.7% 성장했다. 온라인은 연평균 10.1%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은 2.6% 성장에 그쳤다. 오프라인 업체 중에서는 백화점(5.7%)과 편의점(5.6%)이 비교적 선전했지만, 대형마트는 연평균 4.2% 감소하며 구조적 위축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도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1.7%, 온라인 매출은 6.3% 각각 늘었다. 오프라인에서는 패션·잡화(5.1%), 해외 유명브랜드(13.7%)가 호조를 보였으나 식품(-1.6%), 생활·가전(-3.4%)은 부진했다. 온라인에서는 식품(13.7%), 생활·가전(6.0%)이 성장한 반면, 배달·렌탈·e쿠폰·여행상품 등을 포함한 서비스·기타(-2.4%)는 기저효과로 처음 감소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신세계百貨, 선물세트 ‘5스타’ 품질 강화

마블링 9등급 한우 비중 확대
로얄바인 포도 등 희소품목 추가

신세계백화점이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초프리미엄 선물세트인 ‘5스타’의 품질 기준을 대폭 강화해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5스타’는 신세계 바이어가 전국 명산지를 직접 발굴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전 과정을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프리미엄 선물세트다. 2004년 첫선을 보인 이래 20여 년간 매 명절 완판 행진을 이어올 만큼 고객 신뢰도가 높다.

올해 신세계는 5스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상품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우다. 신세계는 국내 최고 등급인 마블링 스코어 9등급 한우의 비중을 전체 물량의 50% 이상으로 늘렸다. 바이어가 국내 최대 경매시장인 충북 음성 공판장을 찾아 직접 선별한 최



신세계백화점이 설 명절을 맞아 5스타 선물세트 품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신세계백화점

상위 개체들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명품 한우 더 시그니처(300만원)’, ‘명품 미각 한우(95만원)’ 등이 있다.

청과와 수산 부문도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했다. 사과는 15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대과만을 선별하며, 올해는 ‘로얄바인 포도’ 등 희소 품목을 추가했다. 수산물 역시 경제 물량 상위 5% 미만인 1m 이상 제주 특대 갈치와 28cm 이상 굴비 등으로 구성해 차별화를 꾀했다.

/손종욱 기자

롯데마트, 설 앞두고 밥상물가 잡는다

제주산 무 개당 990원 등 초특가

롯데마트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제철 신선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밥상 물가 안정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의 대표 상품은 ‘제주산 상생 무’다. 롯데마트는 이달 29일부터 4일간 제주산 무를 개당 990원이라는 초특가에 선보인다. 이는 일반 상품 대비 5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최근 작황 부진을 겪고 있는 제주 농가를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롯데슈퍼와 함께 120톤 물량을 공동으로 확보했다. 크기가 다소 작거나 미세한 흠집이 있지만 맛과 영양에는 차이가 없어 실속형 소비를 찾는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제철 과일과 채소도 할인한다. ‘상생 제주 한라봉(1.5kg)’은 9990원에, ‘밤고구마(100g)’는 329원에 내세우며, 딸기 전 품목은 2팩 이상 구매 시 팩당 2000원을 할인해 준다.

해양수산부와 협업한 수산대전도 열린다. ‘손질 민물장어’와 ‘완도 활전복’ 등을 행사카드 할인을 더해 저렴하게 선보이며, 정부 비축 물량을 활용한 ‘물가안정 갈치’는 시세 대비 20% 싼 4050원에 선보인다. 육류 코너에서는 1++(9)등급 최상급 한우 등심(100g)을 1만4980원에 제공한다.

한편, 롯데마트는 이번 설을 맞아 처음으로 온라인 채널 ‘롯데마트 제타’를 통해 명절 상차림 사전예약 서비스를 운영한다.
/손종욱 기자

하이트진로, 발포주 시장 1위 ‘필라이트’

필라이트 후레쉬·클리어 제품 인기
일부제품 가격인하… 소비자 부담 ↓

하이트진로는 국내 발포주 1위 브랜드 ‘필라이트’의 2025년 연간 출고량이 약 3억4000만 캔(350ml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집계된 누적 판매량은 26억6000만 캔으로 27억 캔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국내 발포주 시장에서 ‘필라이트’는 2위 브랜드와 4배 이상의 판매 격차를 보이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더 확대된 격차로 특히 구

매율이 가장 높은 개인슈퍼 채널에서 차이가 가장 크다.

성장 배경에는 ‘필라이트 후레쉬’가 이끄는 견고한 판매 기반에 더해 지난해 4월 출시한 신제품 ‘필라이트 클리어’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이 있다. 같은해 12월 한정수량 출시한 ‘필라이트 더블 컷’ 또한 조기 완판을 수순으로 벌써부터 재출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하, 민생경제 회복에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9월 필라이트 클리어의 주요 제품인 500mL 캔



필라이트 클리어, 후레쉬, 더블컷 제품.
/하이트진로

을 포함한 3종에 가격 인하를 적용, 소비자들에게 한층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만족도를 높였다. 10월에는 ‘필라이트 후레쉬’의 신규 용량 3종 ▲350mL 캔 ▲490mL 캔 ▲1.9L 페트를 한정판으로 출시해 세분화된 용량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접근성을 높였다.

/신원진 기자 tree6834@

팀홀튼, 도넛 넘어 ‘식사카페’ 전환… 푸드·디저트 라인업 확대

韓 진출 3년, 메뉴 혁신·품질 강화 베이커리·푸드 확대, ‘식사카페’ 전략 매장조리 ‘팀스 키친’ 신선도 차별화 韓 데이터 기반, 글로벌 메뉴 개발 직영 출점유지, 브랜드 완성도 제고

캐나다인 커피 하우스 팀홀튼(Tim Hortons)이 한국 진출 3년 차를 맞아 2026년을 ‘경영 2기’ 원년으로 선언했다. 단순한 매장 확대를 넘어, 한국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과 공간 취향을 글로벌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팀홀튼은 28일 오전 서울 신논현역점에서 ‘2026 팀홀튼 뉴이어 워업(New Year Warm-Up)’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안태열 BKR 최고사업책임자(CBO)는 “한국 론칭 이후 지난 2년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는 ‘경영 1기’였다”며 “이제는 한국 고객의 높은 눈높이에 맞춰 한 단계 진화한 경



팀홀튼 신논현점에서 열린 ‘2026 뉴이어 워업’ 행사에서 안태열CBO가 ‘경영 2기’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팀홀튼

영 2기로 진입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영 2기의 핵심 키워드는 메뉴 혁신과 신선도 중심의 품질 강화다. 팀홀튼은 도넛 중심의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베이커리와 디저트 라인업을 확대하고, 멜트 샌드위치를 넘어 다양한 푸드 메뉴를 선보여 ‘ 식사가 되는 카페’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른 한국 시장에

서 축적한 소비자 데이터를 글로벌 메뉴 개발의 실험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매장 내 직접 조리 시스템인 ‘팀스 키친(Tim’s Kitchen)’이다.

안 CBO는 “대형 프랜차이즈임에도 매장에서 직접 굽고 조리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팀홀튼의 차별점”이라며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으면서도 신선함

을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본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간 전략도 전면 재정립한다. 팀홀튼은 브랜드 60년의 역사와 캐나다 정통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빈티지 캐나다(Vintage Canada)’ 콘셉트를 도입했다. 기존 북미형 매장이 효율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콘셉트는 캐나다 친구의 집을 찾은 듯한 편안함과 현지의 정취를 강조한다.

이 콘셉트는 지난달 문을 연 하남미사점에 처음 적용됐으며, 향후 신규 매장을 중심으로 확대된다. 플래그십 스토어 출점도 검토 중이다.

국내 출점 전략은 당분간 직영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 오픈을 앞둔 9개 매장을 포함해 올해 안에 50호점 돌파가 예상되며, 신규 매장은 모두 직영점으로 개설될 예정이다.

안 CBO는 “가맹사업에 대해서는 제도적 준비를 이미 마쳤지만, 브랜드가 추구하는 품질과 고객 경험을 균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매우 신중

한 입장”이라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푸드 품질을 고객에게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공 모델과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지금 단계에서는 가맹점 확대보다 직영점을 통한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점 도입은 이르면 2027년부터 일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맹점주 모집 요건은 대폭 강화하고, 단순한 점주가 아닌 ‘키 파트너’로 정의해 전폭적인 운영·재무 지원이 가능한 소수의 파트너만을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안 CBO는 “지난 2년은 팀홀튼이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한국 팀홀튼이 글로벌 팀홀튼의 미래 방향을 제안하는 시기”라며 “정통성은 지키되 한국 고객의 높은 눈높이에 맞춘 진화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셀트리온 짐펜트라, 美 역대최대 처방량… ‘성장세 가속’

1월 처방 최고치, 전년比 352% ↑ 온·오프 광고 효과, 마케팅 성과 PBM 확대, 환급 커버리지 90%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짐펜트라’(렘시마SC 미국 제품명)가 새해 들어 역대 최대 처방량을 기록했다.

2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짐펜트라는 올해 1월 2주차치를 기준으로 2024년 3월 미국 출시 이후 확인된 주간 처방량(TRx)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전월 동기 대비 약 27%(아이큐비아), 작년 동기 대비 약 352% 오른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온·오프라인 광고가 주요하게 작용하면서



셀트리온 ‘짐펜트라’

본격적인 짐펜트라 처방 확대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현재 유튜브·TV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광고 및 의사·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광고 등 투트랙의 전략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짐펜트라의 환급 기반을 빠르게 확보한 점 역시 성장세의 원동력으로 꼽힌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짐펜트라 출시 이후 3대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를 비롯한 중소형 PBM, 보험사 등과 협상을 지속해 환급 가능한 시장 커버리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짐펜트라 투약에 대한 비용 부담이 사라지며 처방 선호도가 높아진 결과로 이어졌다. PBM 계약에 따른 환급 채널 성과는 지속되고 있다. 짐펜트라는 최근 미국 대형 헬스케어 기업인 ‘시그나 그룹’ 산하 의료 서비스 전문 기업 ‘에버노스 헬스 서비스’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됐다. 에버노스 등재로 시그나 계열 보험 가입자는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짐펜트라를 쉽고 간편하게 처방받을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짐펜트라의 성장세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임상 데이터를 통해 궤양성 대장염(UC), 크론병(CD) 등 염증성 장질환(IBD) 분야에서 인플릭시맙이 타 제제 대비 의미 있는 치료 효과 및 일관된 의학적 혜택을 보여온 점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짐펜트라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배 이상 대폭 오르며 현지 마케팅 활동, 환급 커버리지 확보 효과가 실제 처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e@

보령컨슈머헬스케어

정웅제 신임대표 선임

영업 조직 경쟁력 높여 체질 개선

보령은 최근 자회사 보령컨슈머헬스케어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정웅제 보령영업부문을 대표 이사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웅제 신임 대표(사진)는 1967년생이며 의약품 영업 전문가다. 한미약품 상무를 거쳐 2017년 보령에 합류해 의원 영업본부장, 영업부문장직을 수행해 왔다. 특히 전략 수립부터 현장 실행까지 영업·마케팅 전반을 이끌었고 빠른 시장 대응과 실행력으로 회사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지씨셀 “차세대 세포치료제 전략 추진”

T·NK세포 포트폴리오 확대 CAR-T·CAR-NK 병행 개발



국내 세포유전자치료 전문기업 지씨셀이 연구개발 조직을 강화하며 경쟁력을 높인다. 세포치료제 전문 역량을 중심으로 특히 T세포와 NK세포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추가해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표 품목인 면역세포치료제 ‘이문셀 엘씨주’ 후속 임상 성과와 상업화 경험 이 구체화되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부 R&D 고도화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2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씨셀 임호용 연구본부장이 임원으로 승진했다.

임 연구본부장은 세포치료제 분야 전문가다. 텍사스주립대학교 면역학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종합약학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

원을 거쳐 2016년 지씨셀에 합류했다. 다년간의 연구 및 개발, T세포 및 NK세포 기반 치료제 전반에 대한 이해, 임상·비임상 전략수립 경험 등을 두루 갖췄다.

지씨셀은 임 연구본부장과 함께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 적용, 상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R&D 전략을 보다 체계화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씨셀은 이미 이문셀엘씨주를 개발해 세포치료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졌고, 최근 도입한 CAR-T 치료제와 자체 개발 중인 CAR-NK 치료제를 병행 개발하는 등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비만치료제 장기지속형 제형 기술 입증

인벤티지랩

오르포르글리피론 주사제 특허 등록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차세대 비만·당뇨 치료제로 주목받는 저분자 화합물 ‘오르포르글리피론(Orforglipron)’을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제형화한 기술에 대해 국내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등록은 현재까지 공개된 사례 중 오르포르글리피론을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구현해 권리를 확보한 최초의 등록 특허이며, 회사는 현재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출원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글로벌 주요국에 대한 개별국 진입 절차를 곧 진행하여 글로벌 권리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인벤티지랩은 GLP-1 계열 저분자 화합물 및 펩타이드 약물들을 ‘IVL-Dru

gFluidic’ 플랫폼에 적용하여 생분해성 고분자에 안정적으로 봉입하고, 균일한 마이크로 입자를 제조하는 핵심 특허들을 확보하고 제형화 기술 역량을 입증해 왔다. 유한양행과 공동연구 개발 중인 세마글루타이드 기반 특허등록을 통해 체내 주입 후 초기 방출을 제어하면서도 장기간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약동학적 제어 기술을 권리화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오르포르글리피론은 일라이 릴리(Eli Lilly)가 개발 중인 경구용 저분자화합물 GLP-1 약물이며 비만 환자에서 매우 우수한 체중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 매일 복용해야 하는 경구제형 약물을 인벤티지랩의 ‘IVL-DrugFluidic’ 플랫폼 기술과 접목해 단 한 번의 주사로 1개월에서 3개월 효과가 지속되는 제형으로 완성하여 특허 등록했다.

/이세경 기자

동아제약

‘파티온’ 군부대마트 입점

MZ 장병 피부관리 공략

동아제약은 최근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부대마트(PX) 입찰에서 더마 화장품 브랜드 ‘파티온’이 선전돼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입점 제품은 노스카나인 트러블 흔적 애플 기획세트, 노스카나인 트러블 모공탄력 크림 기획세트 등 2종이다. 모두 동아제약 독자 성분인 헤파린 RX 콤플렉스와 나노-레티날 RX 콤플렉스를 함유해 피부 트러블, 흔적, 모공 등을 관리해 준다.

노스카나인 트러블 흔적 애플은 인체 적용시험 결과, 7일 사용 시 얼룩덜룩한 피부의 3색 톤(레드, 옐로우, 브라운)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노스카나인 세럼과 병행 사용 시 피부 톤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이청하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현대제철 당진 연구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내 연구실 2곳(자동차접합시험실, 수소시험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연구소 임직원들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신규 인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현대제철 정유동 전무, 조준희 전임연구원, 이종협 팀장, 태순재 상무). /현대제철



제일헬스사이언스, ‘대학생 마케터 1기’ 성료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제일헬스사이언스 대학생 마케터 1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학생 마케터 활동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주간 진행됐다. ‘제일헬스사이언스 대학생 마케터 1기’ 수료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삼양라운드스퀘어·삼양식품, 지역사회 나눔 실천

삼양라운드스퀘어와 삼양식품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신사옥 인근 지역사회에 라면과 스낵 등 식료품 1만8000식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6일 본사를 명동으로 이전한 삼양라운드스퀘어와 삼양식품은 인근 경찰서, 소방서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제품을 기부했다. /삼양식품



카스,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7년 연속 1위

오비맥주 카스가 ‘2026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맥주 부문 7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표정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부총장(왼쪽)과 오비맥주 서혜연 오비맥주 마케팅 부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비맥주



동서식품 “연탄 봉사로 따뜻한 겨울 만들어요”

동서식품이 지난 27일 서울시 송파구 화훼마을에서 에너지 취약 가구를 위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동서식품 직원들은 송파구 화훼마을 이웃들에게 연탄을 비롯하여 담요 등 겨울 용품을 기부하고 직접 전달하는 활동을 펼치며 온기를 전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동서식품 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식품

현대차, CNN 손잡고 ‘K-컬처’ 세계에 알린다

다큐멘터리 시리즈 단독 후원 한국 문화의 특별한 가치 소개

현대자동차가 ‘CNN 인터내셔널 커머셜’(CNNIC)과 전 세계 CNN 시청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선보인다.

현대차는 올해 신규 방영할 CNN 오리지널 시리즈인 ‘케이-에브리팅’을 단독 후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케이-에브리팅은 전 세계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저력을 진정성 있게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콘텐츠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킬 수



현대차가 CNN과 함께 선보이는 오리지널 시리즈 ‘케이-에브리팅’ 소개 이미지.

있었던 근원적 원동력과 위상을 소개한다.

총 4부작으로 제작되는 케이-에브리팅은 지난 2024년 연극·뮤지컬

계 최고 권위의 상인 토니상 수상 후보로 지명된 배우 겸 감독 ‘대니얼 대 킴’이 총괄 프로듀서 및 진행자로 참여한다. 대니얼 대 킴은 그간 아시

소진공 신임 이사장에 인태연 전 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을 역임했던 인태연 전 비서관(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하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소진공은 인태연 신임 이사장이 28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 이사장은 부평 문화의거리 상



인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다. 2024년에는이

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았다. 유튜버 김여준씨의 손위 처남으로도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아모레퍼시픽, 사랑의열매에 3억 기부

포용적 아름다움 실천

아모레퍼시픽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3억원을 기탁했다고 28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2년부터 24년째 희망 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왔다. 2008년부터는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및 자립을 위해 자사 ‘뷰티 풀 라이프’ 사업에 지정 기부했다.

또 2024년부터는 청소년들의 건강

하고 포용적인 미의식 확산을 위한 자사 캠페인 ‘밋유어뷰티’를 지정해 기부하고 있다.

특히 올해 3년차를 맞는 밋유어뷰티 캠페인을 통해 포용적 아름다움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밋유어뷰티 캠페인은 올해부터 학교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확산형 교육을 강화한다. 긍정적 자아상 형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中企 ESG 표준 가이드라인’ 발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글로벌 지표와의 정합성 높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 및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29일 발간한다.

28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은 2020년 ‘중소기업 CSR 표준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매년 국내외 ESG 기준과 법·제도를 반영해 개정해왔다. 그동안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2167개 중소기업이 이를 활용했다.

현재 국내외에는 다양한 ESG 기

준이 있다. 하지만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 최신 ESG 규범 개정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수준에서 통합해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는 표준 가이드라인 공개 요구가 지속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대중기협력재단은 글로벌 지표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공개키로 했다.

특히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에너지·자원순환 등 기존 핵심 이슈를 유지하면서 사회 및 거버넌스 분야는 인권·안전보건·공정거래·윤리경영 등 최신 글로벌 규범 및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존 64개에서 79개 지표로 늘렸다. /김승호 기자 bada@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서 김동아 의원, 박성민 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남근 의원, 구자근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김남근·김동아·박성민·구자근 의원

중소기업중앙회가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김동아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구자근 의원을 선정했다.

중기중앙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2025년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대금 조정 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박성민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을 개정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와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주신 데 감사드립니다”며 “올 한해 중소기업이 경제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가 규제 개선과 제도 보완에 지속적으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인사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 전보 △기후에너지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정선화 ◇과장급 전보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이제훈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정해운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장 양우근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정경화 △국제협력관실 국제환경개발협력팀장 최한창 △K-GX 기획단 부단장 김병훈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기획총괄팀장 박정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 현성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남형용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과장 김지수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강승희 ◇과장급 보임 △대변인실 정책홍보팀장 임태섭 △기후에너지정책관실 기후적응과장 이채원

부음

▲강미순씨 별세, 박희윤(HDC현대산업개발 개발본부장)씨 모친상 = 27일, 경남 창원 한마음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9일, 장지 김해추모의 공원. 055-225-1200.

▲윤영오씨 본인상, 장혜란(한양대 영어영문과 명예교수)씨 남편상, 윤애리(전 한양대 부교수)·유진(커피빈 앤드 벌링 변호사)씨 부친상, 서병호(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실장)씨 장인상, 한정은씨 시부상 =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30분, 장지 대한성공회 수원교회 안식의 집. 02-2258-5940

▲김이례 씨 별세, 서훈(전 국회의원) 부인상, 정현(삼성전자 상무)·정봉(㈜서강 대표)씨 모친상, 김장호(구미시장) 장모상 = 28일 오전 1시, 대구 상례원 장례식장 특실 301호, 발인 30일 오전 6시. 053-952-4000

▲이제형(일양약품 합성실 전무)씨 모친상 = 아주대병원장례식장 23호(수원시 영통구 광고중앙로49번길 46), 발인 30일, 장지 용인평온의 숲-이천호국원. 031-219-6654

▲두순구 씨 별세, 두경태(롯데호텔 서울 총지배인)씨 부친상 = 27일, 빈소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인천가족공원. 02-3010-2000

‘노력의 배신’을 끝내는 법



지 상 범 의

입시 토크

매년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를 치른 신입생과 학부모들은 거대한 장벽 앞에 선다. 중학교 시절 상위권을 유지하며 밤잠을 설치던 '성실한' 아이들이 4~5등급이라는 낮은 성적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력의 배신'이다. 고등학교 학습은 방대한 범위와 심화된 사고력을 요구하기에, 기존의 단순 반복형 학습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최신 교육 심리학 논문과 뇌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고교 3년의 승기를 잡을 5가지 전략적 설계를 제안한다.

◆ ‘유창성의 착각’을 깨는 ‘화이트보드 티칭’

가장 위험한 함정은 화려한 1타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다. 인지과학에서는 이를 ‘유창성의 착각(Illusion of Fluency)’이라 부른다.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입력’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믿는 오류다. 해결책은 강력한 ‘인출 연습(Active Recall)’이다. 공부가 끝난 후 빈 종이에 개념을 정리하거나, 작은 화이트보드 앞

에서 가상의 학생에게 설명하듯 말해보는
'티칭 복습'을 실천해야 한다.

◆ ‘취약점 지도(Vulnerability Mapping)’와 데이터 기반 배분

모든 과목을 균등하게 공부하는 것은 전략적 실패다. 자신의 약점을 데이터로 직면하는 '취약점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오답의 원인을 단순히 '계산 실수'로 치부하지 말고, '조건 누락', '개념 혼동' 등으로 정교하게 분류해 자신의 인지적 편향을 찾아내야 한다. 수학·영어 같은 계통성 과목은 평소 가용 시간의 70%를 투입하되, 사회·과학 탐구는 단위 간의 논리적 구조화를 통해 시험 기간의 부하를 줄이는 영리한 시간 배분이 필수적이다.

◆수면은 기억의 저장소이며, 체력은 집중력의 총량이다

성적 향상을 위해 잠을 줄이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수면은 낮에 배운 정보를 대뇌피질로 옮겨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기억의 공고화(Consolidation)’ 과정이다. 또한, 장기적인 입시에서 체력은 곧 집중력의 총량이다. 뇌의 산소 공급을 돕는 유산소 운동과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식단 관리는 ‘신체 지능(PQ)’을 높여 엉덩이 힘이 아닌 뇌의 효율로 공부하게 만든다. 집중력은 의지가 아니라 최적화된 신체 상태에서 나온다.

◆수행평가, 만점을 넘어 '입시 자산'으로 전환하라

고교학점제 아래에서 수행평가는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인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의 원천이다. 평가 기준을 철저히 분석해 최소 시간으로 만점을 받되, 자신의 진로와 연결된 '후속 탐구'를 덧붙여야 한다. 수행평가에서 느낀 지적 호기심을 보고서나 발표로 확장하는 과정은 기록자인 교사에게 학생의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전략적 수행평가 관리는 내신 점수와 입시 경쟁력을 동시에 잡는 카드다.

◆부모의 역할: ‘감독관’에서 ‘러닝 파트너’로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 회복 탄력성(Grit)이다. 성적이 정체되는 ‘플래토(Plateau) 구간’에서 아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모는 결과보다 ‘전략의 수정’과 ‘루틴의 유지’에 집중하는 마인드셋을 가져야 한다. “공부했니?”라는 다그침 대신 “오늘 계획 중 어떤 고비를 넘겼을 때 가장 성취감이 컸니?”라는 질문으로 아이의 자기 효능감을 자극해야 한다. 부모의 지지는 아이가 입시라는 긴 터널을 완주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 JBS진로진학연구소장

유럽에선 폐기, 한국에선 향기?



기지 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유럽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돼 '버려진' 성분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문제의 성분은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BMP)'이다.

BMP는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향료’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알레르기 및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태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우려가 제기된 물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유럽연합(EU)과 영국에서는 BMP를 ‘CMR 물질(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로

분류해 2022년 3월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다르다. BMP가 사용 금지 성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정 농도 이하일 경우 성분 표기조차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다. 그 결과 국내 유명 헤어·바디 제품, 특히 '향이 좋은 브랜드'로 알려진 제품들에서 해당 성분이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소비자는 위험을 인지할 기회조차 없이 매일 피부에 해당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위험을 미리 알고 구매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소비자의 알 권리는 제도 바깥에 놓여 있고, 기업은 ‘합법’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에서 한 발 비켜서 있다. 규제의 공백이 소비자의 불안으로 전가되는 구조다.

K-뷰티는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산업이 아니다. 글로벌 브랜드를 자처하면서도 안전 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흔들리는 것은 결국 K-뷰티의 신뢰다.

화장품은 사치재가 아니다. 남녀노소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재다. 그럼에도 ‘유럽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한국에서는 허용된다’는 논리가 반복된다면, 그로 인한 위험과 불안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 화장품 안전 기준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기업 편의를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다.

/tree6834@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1	6			5		
				8				
8					4			3
4								
	1		3		7		6	
								5
6			4					1
				1				
		7			5	8		2

7			9	1	8			5	3
	4	9	3						2
2					4	1	8		
	5								
8	1		4	7	5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 퍼즐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8	9	9	6	7	4	1	8
4	9	8	1	7	2	8	6	
1	6	7	2	8	4	9	8	9
9	8	4	1	6	2	8	9	7
6	9	2	7	8	8	1	9	5
7	1	8	9	5	8	6	2	4
8	2	6	7	7	1	9	9	8
9	7	1	8	8	9	4	6	2
8	4	8	6	2	9	1	8	3

9	6	2	9	5	7	4	1	8
4	1	9	8	8	2	7	6	
7	8	8	2	6	1	4	9	9
6	8	1	4	9	9	7	8	2
4	5	8	6	2	7	8	9	1
2	7	9	1	8	8	6	4	9
1	2	6	7	4	9	5	8	3
8	9	7	8	9	2	1	6	4
8	8	4	8	1	6	9	2	7

김상회의 四季

절망에서 희망을



마흔 초반에 많은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사업가가 있다. 그는 몇 해에 걸쳐 재극인財淸印이라는 매우 불리한 운을 겪었다. 재극인은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것인데,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무리한 투자로 빚을 지면서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함께 극심한 절망에 시달렸고 그 시기에 만난 계사주학이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재극인의 운세가 곧 끝나고 좋은 기운인 관인상생의 운이 시작된다는 시기였다. 官印相生은 명예와 지위를 얻고 인성의 도움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는 길한 운이다. 그는 재기 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기술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사업 실패 경험과 새롭게 취득한 기술을 결합해서 작은 전문직 분야에서 길을 열 수 있었다.

그는 命理學 덕분에 지하에 있던 자신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고 말한다. 누구나 삶이 막히게 되는 시기가 있으니 노력해도 결과는 없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이 온다. 命은 이런 시기를 단순히 불운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기운의 방향이 바뀌는 운의 전환기라고 본다. 절망의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의 신호로 여기며 어려운 운세에 처했을 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다. 운이 좋을 때는 별고, 운이 나쁠 때는 또 다른 운세를 준비하며, 운이 바뀔 때 도약하라고 일러준다. 또한 절망의 시기에 해야 할 일과 그만두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 줌으로써 구체적인 현실의 방안을 제시한다. 투자와 사업 확장이 어려운 시기에는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미래의 운이 바뀔 때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추도록 한다. 절망의 시기를 알려주고 그 속에서 희망의 문을 여는 시간을 찾는 지혜를 제공한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자신, 팔자學의 운명을 재구성하도록 이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4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7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서울교육청, AI평가·기초학력 강화... ‘학생성장’ 중심 대전환

정근식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AI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 고도화
학습진단성장센터 생활권 전환
예술교육 예산 2배 ‘1학생1예술’
상담교사 증원·교사연구비 확충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기초학력 증진과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한 진단 센터를 확충하는 등 학생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 정책 대전환에 나선다. 학생 예술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려 ‘1학생 1예술교육’ 실현을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도 매년 50명씩 증원해 5년 내 모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사연구지원 예산 역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정 교육감은 먼저 취임 이후 ‘1호 결재’로 추진해 온 학습진단성장센터의 성과와 확대 방안을 강조했다. 학습진단성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현진 기자

장센터는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 지난해 상반기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현재는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에 구축됐다.

정 교육감은 “학습 부진은 단순한 성취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삶 전반과 연결된 문제”라며 “특히 남부학습진단성장

센터는 2024년 대비 약 1.5배 많은 학생을 발굴·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센터를 기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생 생활권 중심으로 확대해 보다 빠르고 정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약자 지원도 강화된다. 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을 위해 2026년부터 AI 기반 실시간 통·번역 솔루션과 다+누리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강북권과 중부권을 아우르는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AI 기반 교육 정책 역시 본격화된다. 정 교육감은 “AI 디지털 리터러시 진단 대상을 지난해 1만 명에서 올해 3만 명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SEN스쿨’을 학교 현장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AI교육센터를 단계적으로 설립한다. 정 교육감은 “서울대·연세대·서울시립대 등과 연계한 심화 프로그램을 통해 AI 핵심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라며 “AI 에듀테크 선도교사는 1교 1명 배치를 목표로 현재 800명에서 1300명까지 확대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 방식도 변화한다. 정 교육감은 “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며 AI 서·논술형 평가 지원 시스템 고도화와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성장 중심 평가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교사의 평가 부담은 줄이고, 학생에게는 보다 정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시범 운영한 ‘관계회복 숙려제’를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전면으로 확대한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상담교사를 올해부터 매년 50명씩 증원해 5년 내 전 학교 배치를 목표로 하고, 마음건강학교도 21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교원 자원과 행정 부담 경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 교육감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이라며 “교원 연구역량 강화 예산을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려 약 43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교원 침해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과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교육청으로 이관해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인다. SenGPT 기반 AI 행정 지원 프로그램도 현장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신체활동 및 문화 향유 역량과 예술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 ‘1학생 1스포츠’, ‘1학생 1예술’ 교육을 지속 강화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용역 4193억 발주

3기 신도시 기반시설 중심
지역경제·일자리 효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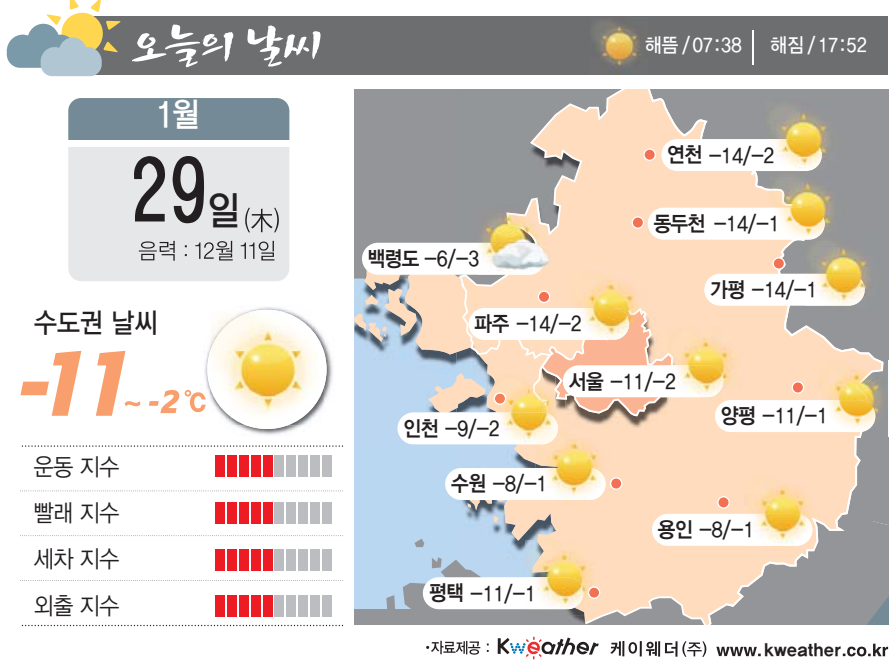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은 총 305건으로, 공사 53건(2407억 원), 용역 252건(1773억 원)이다.

공사 부문은 ‘킨텍스로 입체교차로 개선사업 건설공사(611억 원)’를 비롯해,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지구외도로(접속시설) 건설공사(300억 원)와 남양주왕숙 시도20호선 확장공사(225억 원) 등 3기 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주요 대상이다.

용역 부문 또한 3기 신도시 물량에 집중된다. 주요 발주대상은 건설 및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 ▲광명하운 S1~S3블록 감독권한 대행 등(335억 원) ▲남양주왕숙 부지조성공사(5공구) 외 감독권한대행 등(149억 원) ▲과천과천 부지조성공사(2공구) 감독권한대행 등(130억 원) 등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관련 조례와 법령에 따라 지역 제한 입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돕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고교학점제 ‘부담 줄이고 선택 늘린다’

교육부, 선택과목 학점기준 완화
미이수 온라인으로 학점 취득 기회

교육부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온라인·공동교육과정 활용 등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며,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고교교육을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 완화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에서 요청한 교육과정 수립·변경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대책의 핵심 내용은 ▲학점 이수 기준



고교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 행정에고안에 대해 출석을 중심 이수 기준 설정, 기초학력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완화 ▲미이수 학생 학점 취득 기회 마련 ▲선택 과목 확대 ▲학습 결손 예방 ▲현장 착근 지원 ▲학생·학부모 이해 지원

▲관리 체계 확립 등 7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올해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2/3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다.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전체 수업 일수 2/3 이상 출석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미이수 학생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학교 및 교육청 신청 후 방과 후 수업 등에서 이수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서부트럭터미널, 990세대 복합단지 조성

서울, 건축위원회서 3건 심의 통과
금호역세권 장기전세 167세대
목동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

서부트럭터미널이 990세대 25층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금호역세권에는 장기전세주택 167세대가, 중랑목동엔 공공임대 오피스텔 152실이 들어서 역세권 주택공급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27일 제1차

건축위원회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사업 ▲금호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변경) ▲중랑구 목동 복합시설 건립사업 등 총 3건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서남권 물류거점 고도화, 역세권 중심 주거공급,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이 이뤄지며 지역별 도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1979년 지어진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 1315 일대)이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본격 개발된다. 지원시설용지는 지하 5층·지상 25층, 최고높이 77.4m 규모로 조성돼 서남권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공동주택 990세대(임대주택 98세대 포함)와 업무시설 1만6000㎡가 함께 들어선다. 서부트럭터미널은 지난 수십 년간 서울의 생활 물류를 담당해 왔으나, 물류환경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기능 재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경질설 일축에도 美 국토장관 사퇴 압박 거세져
▲트럼프 “미네소타 시민 사살, 정직하게 수사”... 연일 진화 메시지 /사진 뉴시스

▲英 총리, 8년만에 방중... 중국발 안보 우려에 “냉철·현실적 시각 유지”
▲스페인 정부, 불법 체류자 최대 100만 명 체류 합법화

▲“프랑스, 공공 부문서 줌 등 美 화상회의 플랫폼 사용 금지”
▲우크라 외무 “젤렌스키, 푸틴 직접 만나 영토·원전 문제 논의할 준비돼”



이커머스
멤버십으로
'탈팡죽' 공략
L1



Life

팀홀튼
도넛 넘어
식사카페로
L2



행복한 한입에 사르르 전세대 입맛 녹인 ‘근본 케이크’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롯데웰푸드 ‘몽셀’

1991년 ‘몽셀통통’ 이름으로 출시
마시멜로 대신 바닐라 생크림 사용
고급스러운 맛·부드러운 식감 살려
템퍼링 초콜릿 코팅으로 깔끔함까지

카카오·딸기 등 다양한 라인업 선택
트렌드 반영해 ‘프리미엄 몽셀’ 출시
말차·딸기 풍미에 크림양 25% 더해

SNS서 ‘행복한 몽셀’ 캠페인 진행도
소비자가 만든 ‘ميم’ 활용 등 적극 소통



몽셀 생크림 케이크
오리지널



프리미엄 몽셀
말차&딸기



몽셀 생크림 케이크
카카오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일수록 변
치 않는 가치를 찾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
난다. 최근 주목받는 ‘근본이즘’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근본이즘은 오랜 시간 사
랑받아온 브랜드의 제품을 소비하며 안
정감과 만족감을 얻는 소비 방식을 일컫
는다. 일회성 유행보다 제품이 쌓아온 가
치에 무게를 두는 소비자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1991년 출시된 롯데웰푸드의 반생 케
이크 브랜드 ‘몽셀’은 매년 연간 약 2000
만갑을 판매하는 대표 장수 브랜드다. 그
비결은 차별화된 맛과 품질에 대한 자신
감에 있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생크림 파이로 국
내 파이류 시장 단숨에 장악

부드러운 크림을 채운 파이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몽셀은 1991년 8월, ‘몽셀통
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출시됐다. 프랑
스어 ‘mon(나의)’, ‘cher(사랑하는)’, ‘ton
ton(삼촌)’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친근한
삼촌이 건네주는 간식 같은 따뜻한 이미지
를 담고 있었다.

몽셀통통은 출시 직후 기존 파이 제품
들과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주목받았다.
1990년대 주부들은 지인이나 자녀에게 주
는 간식 선물은 물론, 모임 자리에 내놓는
다과로 늘 몽셀통통을 선택했다. 당시 국
내 파이류 시장의 주류가 마시멜로를 사
용했던 것과 달리, 크림케이크 스타일을
적용해 새로운 맛의 방향성을 제시한 덕
분이었다.

몽셀통통은 화이트 바닐라 생크림을 사
용해 보다 고급스러운 맛과 부드러운 식감
을 선보였다. 특히, 제품 겉면을 템퍼링(초
콜릿을 녹였다가 온도를 맞춰 다시 굳히는
과정으로 코코아 버터의 지방 결정 구조를
안정화해 맛과 품질을 높인다)과정이 적용
된 초콜릿으로 코팅하면서 입에서 잘 녹고
뒷맛이 깔끔하도록 맛을 구현했다. 또한
케이크 윗면을 물결 무늬의 초코 라인 데
코레이션으로 장식하며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맛의 경험을 제공했다.

몽셀통통은 1999년, 이름을 현재의 ‘몽
셀’로 변경했다. 이때 케이크 안에 샌딩된
생크림의 특징도 더욱 강화했다. 우유의
고소함이 풍부히 녹아있는 생크림과, 입녹
음이 깔끔한 초콜릿케이크라는 특성을 강
화한 것이다. 이후 2023년에는 더욱 풍성
한 맛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의 중량을 32g
에서 34g으로 높였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몽셀은 30년이 넘
는 시간 동안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현재는 ▲몽셀 생크림 케이크
오리지널 ▲몽셀 생크림 케이크 카카오

▲몽셀 생크림
케이크 딸기 등
다양한 라인업을
운영하고 있다.

◆크림 양 늘리고 다양
한 맛 선보이는 ‘프리미엄 몽셀’
론칭

2025년 10월 몽셀은 또 한번의 새로움을
선보였다. 프리미엄 디저트 수요에 대응하
기 위해 미식 속성을 강화한 ‘프리미엄 몽
셀’ 브랜드를 론칭하며 제품군을 넓혔다.

‘프리미엄 몽셀 말차&딸기’는 프리미
엄 몽셀의 첫번째 제품이다. 기존 몽셀 대
비 크림 양을 약 25%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제주산 말차와 카카오를 블렌딩한 비스킷
을 부드러운 생크림과 국내산 설향딸기잼
으로 가득 채워 풍부한 식감을 제공하며,
겉면을 감싼 말차 스위트가 달콤 씹사름한
풍미를 더한다.

롯데웰푸드는 프리미엄 몽셀의 라인업
을 지속 늘려갈 계획이다. 소비자 트렌드
를 반영해 보다 다양한 미식 경험을 선사
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몽셀은 소비자와 적극적인 소통
도 꾸준히 이어가는 중이다. 2024년 진행
했던 ‘행복한 몽셀’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행복한 몽셀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만든
‘ميم(Meme)’을 활용한 SNS 캠페인이다.
몽셀을 개봉했을 때 일부 제품에서 방긋
웃는듯한 모양의 데코라인(물결무늬 초콜
릿 장식)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
이 직접 “당신은 방금 행복한 몽셀의 축복
을 받았습시다”라는 멘트를 붙인 것에 착
안했다.

일명 ‘행복한 몽셀’이 온라인상에서 주
변 친구들에게 응원을 전달하는 긍정적인
밈으로 확산하자, 롯데웰푸드는 직접 인스
타그램 캠페인을 열고 행복한 몽셀 사진을
업로드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등
소통 활동을 전개했다.

또, 캠페인을 기념해 ‘행복한 고무마 웹
툰’으로 유명한 ‘도대체 작가’의 ‘행복한
몽셀 웹툰’과, 풍성한 생크림과 더 부드러
운 식감을 구현해주는 ‘프리미엄 템퍼링’
을 적용한 초콜릿 덕분에 행복해진 몽셀의
스토리를 담은 ‘스튜디오 끼니’의 영상 콘
텐츠를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캠페인은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
통을 높게 평가받아 ‘2024 대한민국 디지
털 광고 대상’, ‘2025 에피 어워드 코리아’
등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몽셀은 앞으로도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표 크림케이크로서 입지를 강
화해갈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1991년



2002년



2013년



2018년



2024년



▲대한체육회 “스키 대표 선발 논란 엄중 인식…
무관용 원칙” /사전 뉴시스
▲박세리, 배우 김승수와 결혼설 깜짝 “가짜뉴스
황당”

▲2026 동계올림픽에 개인종류선수 20명 출전…
러시아·벨라루스 출신
▲남자 핸드볼, 사우디에 32-31 신승…아시아선
수권 5위로 마감

▲아시아 9개국 공연예술 전문가 한자리에… ‘더
넥스트 노멀’
▲“예술은 끝없는 것을 시작하는 일”…단색화 거
장 정상화 별세

SAMSUNG



Galaxy Book6 Pro

Galaxy AI

아카데미

새로운 시작, 더 잘하고 싶어서

행사기간 2026. 01. 01 - 03. 31

AI 노트북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갤럭시 AI 아카데미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제품 사양은 국가, 지역, 또는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samsung.com